

2022 문화도시부평 포럼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2022. 7. 29.(금) 14:00~17:00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1층 다목적홀

대상 문화도시와 공공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행사 소개

부평구는 2021년 1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상 사업인 삼삼오오 작은 모임 지원, 꽤 쓸모 있는 도시실험, 예술가 대상 사업인 도시예술연구소, 씬앤굿즈제작, 지역뮤지션 앨범제작 지원, 공간 대상 사업인 부평별곳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득 부평에서 다양한 지원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지원 받는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지원 담당자의 재량과 한계에 갇혀 폐쇄적인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 흐름에 대해 설명해주실 전문가와 부평 내외 공공 지원기관의 지원 설계자, 인천 공간 지원사업 담당자, 지원을 직접 받고 계신 현장의 여러분을 포럼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질문과 답을 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

- 주제**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 일자** 2022.7.29.(금) 14:00-17:00
- 장소**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168 1층 다목적홀
- 대상** 문화도시와 공공지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시민, 예술가, 공간지원 방식의 특성과 변화
- 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032.500.2152

행사 식순

구분	일정	내용	진행/발표
	14:00-14:01	1' 개회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팀장
	14:01-14:05	4' 인사말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좌장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부. 도시, 예술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

발제	14:05-14:20	15'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14:20-14:35	15'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토론	14:35-14:55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1	김기훈 무용가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14:55-15:00	5' 휴식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

발제	15:00-15:15	15' 마을공동체 지원의 특성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
	15:15-15:30	15' 사회혁신사업·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	원민 전주서사회혁신센터장
토론	15:30-15:50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2	이용우 동네야놀자 사무국장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15:50-16:00	10' 휴식	

3부. 인천 공간지원 사례

발제	16:00-16:15	15' 인천문화재단 점점점 공간지원 사례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16:15-16:30	15' 인천서구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사례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토론	16:30-16:50	20'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3	청산별곡 생활문화공간 달아네 대표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16:50-17:00	10' 폐회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팀장

목차

발제 1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7
발제 2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17
토론 1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김기훈 무용가	25
토론 2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27
발제 3	부평 마을공동체 지원제도의 변화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31
발제 4	전주시 사회혁신 사업과 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49
토론 3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 동네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용우 동네야놀자 사무국장	59
토론 4	민간단체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63
발제 5	인천문화재단 공간지원 사례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65
발제 6	인천서구 공간지원 사례 -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팀장	71
토론 5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청산별곡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83
토론 6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87
녹취본			95

발제 1

도시지원의 흐름과 변화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질문) 누구에게 플러트를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

1. 플러트를 만든 아이
2. 플러트를 잘 부는 아이
3. 플러트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선택은?
아르마티아 센의 선택은?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질문) 플러트를 누구에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를
누가 결정하는가?

1. 부평시 및 시의회
2. 부평문화재단 및 문화도시 추진센터
3. 부평시 기반 활동 예술가
4. 부평시민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문제

질문) 플랏을 누구에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운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1. 부평시 방침 및 시의회 의결
2. 권위 높은 문화예술 전문가 심사
3. 부평시 기반 활동 예술가 대표 모임 논의
4. 공론장 및 민주적 절차(투표, 추천)



도시 문화예술자원의 분배정의 문제

질문들의 답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도시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의 문화이자 문화도시의 목적



도시지원 변화 추세

개발

사회 SOC 건설
2, 3차산업 유치
주택건설

Hard power



재생

공간재활용
고유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3, 4차산업 유치

Soft power



정부의 도시지원 문화예술 정책

(법정) 문화도시

관광도시

문화특화지역조성

지역문화활력촉진

동아시아문화도시

* 유네스코 창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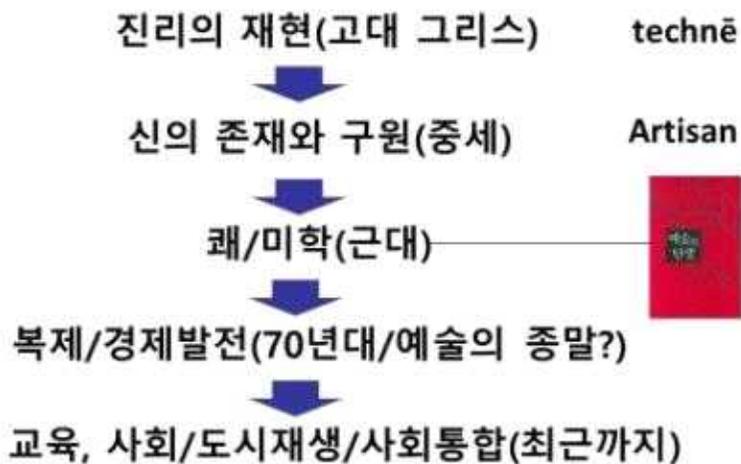
* 상호문화도시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역사 속 예술의 역할 변화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변화

민주화, 시장화, 다원화

정치민주화	자본시장개방	개별성
경제민주화	민영화	지역화/세계화
사회민주화	시장경쟁력 강화	성평등

문화민주화(문화민주주의), 문화산업/예술산업, 문화다양성



도시 문화예술 지원 목적 및 근거 변화

문화예술진흥법(1970년대~2000년대):
예술진흥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2010년대):
문화기본권 보장, 지역문화진흥



도시 문화예술지원의 목적

1. 도시성장과 도시민 삶의 질 제고
2. 총체적 도시문화의 발전 추구



문화도시 ≠ 예술도시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역할

1. 도시성장과 발전 기여
2. 시민의 문화적 역량 제고
3. 도시문화발전 선도
4. 예술혁신, 사회혁신 선도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 예술가 지원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가지원

1. 근거: 헌법/예술인권리보장법
2. 주요내용

○ **문화도시(예술도시)의 사회적 권리**는 예술 분야에 자유를 보장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의 존엄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예술인은 '영혼의 여행'을 위하여 모든 문화예술 기관, 국면에서 문화국가 실현과 국면의 삶과 밀접하게 가려지는 존재로서 중요한 존엄을 지니고 있다.
 ○ 예술인은 노동과 휴식에 관한 다른 문화적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보장받는다.
 ○ 예술인은 교향적인 예술 활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
 ○ 예술인은 국가(지방자치)의 예술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할 권리에 참여할 수 있다.

3. 지원방법: 상시지원, 예술가의 자기예술 지원
 - 소액다건 계기성 지원, 지원편의성 강화, 예술가 상호 심사 선정
 - <부평구 예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 <부평구 예술인지원센터> 운영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1. 근거: 문화기본법/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
2. 주요내용
 -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술지원
 - 예술적/사회적 혁신, 예술 공공성의 예술지원
3. 지원방법: ① 기획지원(주제 및 목적 제시)
 - 집중과 선택, 지역사회 및 예술계 제시 활동 지원
 - 권위있는 전문가 심사, 선정
 - 예술성/사회성평가>행정평가=예술/사회 비평
 - 기업후원연결(ESG)/창작공간제공/연속지원



부평 문화도시의 예술과 예술가 지원

예술지원

3. 지원방법: ② 시민후원지원
 - 텀블벅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 예술활동 매칭 지원
 - 기업 및 시민 후원 약정 시 매칭 지원
 - 예술가 선택 자율 활동 지원



문화도시 문화예술지원의 새로운 사회계약(New Deal)

과거/현재

- 과거의 예술 후원자: 왕, 귀족, 교회, 자본가
- 현재의 예술 후원자: 국가 및 공공행정
- 소유로써의 예술
- 하향식 지원
- 행정, 엘리트 주도



미래

- 미래의 예술후원자: 시민과 지역사회
- 공유로써의 예술
- 상향식 지원
- 보충성의 원리



부평 문화도시의 미래상

문화 분권과 자치의 실현



문화자치의 도시, 부평!

발제 2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목 차

1. 문화예술 지원구조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4. 맺음말

3

1. 문화예술 지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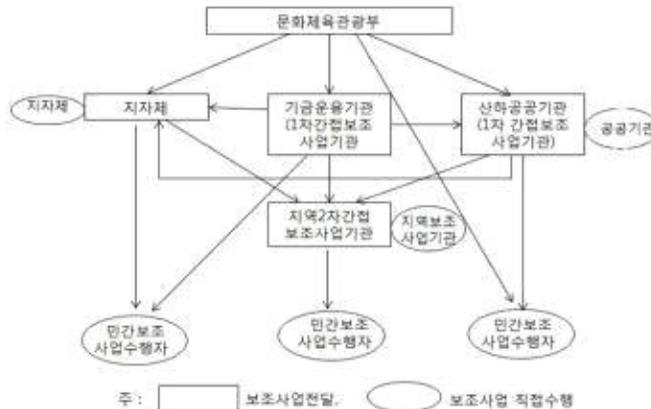
문화예술 재정 기본특성

- 문화예술 재정의 특성
 - * 문화예술 정책은 지원정책 중심의 특성
 - *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재정은 정부 재정의 1.21%에 불과하지만, 이중 보조금 비율이 약 64%로 보조금 규모는 전체 부처 중 5위
 - * 타 부처는 의무지출, 대규모 지출이 많지만, 문화는 소규모 지원이 많아 사업건수 가장 많음.
 - * 지나치게 영역별, 기능별 칸막이가 심하고 지원체계/전달체계가 복잡
- 지역문화지원사업 전달체계 유형
 - ①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지역의 간접보조사업자→최종 사업수행자
 - ② 문화체육관광부→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지역의 2차 간접보조사업자→최종사업수행자
 - ③ 문화체육관광부→중앙의 1차 간접보조사업자→최종사업수행자
 - ④ 문화체육관광부(기금운용기관)→지방자치단체/최종사업수행자
- 문화재정 지원기관
 - ① 문화체육관광부, ② 기금운용기관,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 ④ 지자체, ⑤ 지역의 공공기관

1. 문화예술 지원구조

지역문화지원사업 전달체계

▶ 지역문화지원 전달체계도(국고)



지역의 자체 지원체계는 별도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기능별/유형별 분산된 지원기관
 - * 중앙에는 칸막이가 심한 기관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
 - * 전문성/다양성을 이유로 공급자 관점의 지원프로그램과 중복 발생
 - 복/융합 시대에 기관별 유사 지원 프로그램 존재
 - * 수요자, 지역의 관점에서는 다수의 지원 프로그램 연계,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필요
 - 사례 : 영국 ACE의 통합적 지원시스템
- 전달체계의 복잡성
 - * 공급자 중심의 상이한 지원지침으로 인한 규제 논란
 - * 지원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불명확 : 과도한 통제 vs 관리 책임 미흡
 - * 전달체계 과정에서 거래비용(간접비용)의 발생 및 최종 수요자 전달 지원의 축소
- 프로젝트 중심 지원에 따른 문제
 - * 1년/프로젝트 단위 지원에 따른 지원 효과의 불명확(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 공공지원 위주 지원인 우리 여건상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으로 가능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실현 구조적 불가능
 - * 프로젝트 중심에서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문화예술인/단체간 지나친 경쟁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지원프로그램 결정 및 지원심의 프로세스
 -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수요자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원 프로그램이 결정
 - 정보와 준비가 가능한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 지원예산의 미집행에 따른 전체 재정의 피해
 - 단기간 지원심의에 따른 문제
 - 효율성과 투명성은 담보가 가능하지만, 공정성과 타당성은 상대적으로 미흡
 - 영국 ACE는 중장기 계획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되며, 정기 지원심의회는 회계연도 1년 전에, 수시 지원심의회는 연중 지속
 - 지원결정 지연에 따른 수요자의 사업기간 단축 및 한정된 시장의 경쟁
 - 지원심의 목적
 -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라는 우리나라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영국 ACE
 - 지원 목표의 불명확
 - 부족한 재정의 보조 위주 : 한정된 자원을 다수의 대상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신청액/필요액 보다 더욱 감액하여 지원
 - 미국 NEA는 해당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 유지가 지원의 전체 조건
 - 이러한 소액 다건식 나눠주기 문제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문제점으로 발생

2. 문화예술 지원구조 현황

- 지원심의 기준 및 지원심의 방법
 - 지원심의 공통기준
 - ① 단체의 역량(활동실적) ② 지원프로그램 우수성(기대효과) ③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예산포함)
 - 지원심의 유형별 추가 기준
 - ④ 사업정체성 ⑤ 협력/운영체계
 - 지원심의 점수 부여 기준
 -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지만, 심의위원별로 차이가 많아 공정성 논란
 - 지원심의 기준별로 계량화 점수 부여 방법 도입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과도한 기획역량 요구
 - 지원심의 목적
 - “ 지원심의 총평 ” 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지원 대상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 논란
 -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심의결과를 작성하는 영국 ACE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 지원심의 기준 및 지원심의 방법
 - 지원심의 공통기준
 - ① 단체의 역량(활동실적) ② 지원프로그램 우수성(기대효과) ③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예산포함)
 - 지원심의 유형별 추가 기준
 - ④ 사업정체성 ⑤ 협력/운영체계
 - 지원심의 점수 부여 기준
 -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지만, 심의위원별로 차이가 많아 공정성 논란
 - 지원심의 기준별로 계량화 점수 부여 방법 도입 필요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과도한 기획역량 요구
 - 지원심의 목적
 - "지원심의 총평"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는 지원 대상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성 논란
 - 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심의결과를 작성하는 영국 ACE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패러다임의 변화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원구조 개선 기본방향

문화예술 지원 구조 개선 기본 방향

- 문화예술 자율성 보장과 구조 혁신
- 간막이식 비효율적 지원/전달체계의 혁신
- 한정된 자원의 경쟁에서 협력과 연대 체계 강화
- 사각지대 없고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춤형 지원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원칙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다년간 지원 위주(3년) 확대
 - * 프로젝트 지원은 감작활동 및 발표에 정부 개입이 가능
 - * 예술활동의 주기, 지속가능성, 예술지원의 자율성 획기적 제고
 - * 예술인/단체의 역량개발, 달성목표 중심의 성과계약 평가, 예술활동 내용은 자율적 결정
 - * 예술지원의 공정성 제고

창의 융합과 연계된 청년문화예술 정책

- 진입장벽이 높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종합적 지원
 - * 예술인 복지, 다년간 지원, 연대/협력/창작공간, 발표공간/유통 등 연계 지원
- 청년예술인들의 문화정책 경험 확대를 위한 참여 기회 확대
- 청년들의 창의성을 위한 수요자 참여기획형 프로그램 지원
- 창의/융합과 연계하여 경쟁력 및 전문성을 가진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원심의 개선방향

지원구조 혁신 관련 개선방향

- 지원 전달체계의 혁신과 관련한 수요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단순화 및 연계
- 지원신청 및 프로세스의 통합 연계
- 연대와 협력을 위한 연계협력형 사업의 확대
- 성과계약제 확대 및 지원사업자의 자율성 보장

지원심의 개선방향

- 지원신청서의 단순화/모범화
- 지원심의위원의뱅크 및 사전교육제도 강화
- 사업준비 기간 고려 지원신청 기간의 앞당김 및 심의 기간의 확대
- 문화예술계의 의견과 연계한 전문심의위원 제도 및 사후평가제 단계적 확대
- 정성 지원심의의 기준의 계량화 및 세부평가기준의 확대
- 모든 지원심의의 결과에 대한 통보
- 지원심의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아의제가 확대

3. 문화예술 지원구조 개선방향

지역문화재단의 대응전략

12

공공기관 혁신 및 전달체계 개선 대응

- 예술정책, 문화복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문화시설/행사 운영 등 복합 문화행정체계에서 효율적 운영체계 재정립
- 지자체 및 광역문화재단과의 연계 및 역할 체계 재정립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제도화
 -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고유사업과의 관계 및 정책 우선순위
- 재정위기 및 정책전환기 지역문화재단별 정책 우선순위 및 특성화 정립
- 지자체 타 분야 문화행정 연관 영역과의 거버넌스 및 전문성 확대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연계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체계

지역문화의 생산지 발전을 위한 전략

- 지역별 특성 있고 차별화된 문화예술 생산을 위한 장기적/종합적 지원
- 다년간 선택과 집중 지원 정책 전환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체계 정립
- 지역간 연대와 협력 정책
 - 지역문화 지원사업에서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의 연계를 위한 교류 협력
- 창의/융합 문화정책 전환기에 이를 위한 허브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대응체계
- 타 분야와의 연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응체계

13

4. 맺음말

- 기본적으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화예술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보다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
- 한정된 공공자원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 문화예술 내에서도 다른 지원 사업 보다 지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함.
- 문화예술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논거를 문화예술계 내에서 스스로 제시하여야 함.
- 재정위기, 공공기관 개혁의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 지원도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과 구조의 혁신 필요
- 대한민국이 한단계 도약하고,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에서 전 지역의 문화가 발전하고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정책 전환, 혁신과 창의, 규제혁신 필요

토론 1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김기훈
무용가



1. 공공 지원 제도에서 보완될 부분

- 공연장과의 지속적인 연계
-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작품 심화 발전에 도움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매체(SNS, 유튜브 등)를 활용한 전폭적인 홍보
- 창작 작품의 아카이브를 위한 영상 기록 및 평론 등 지원
- 무용가 인력풀 플랫폼 구축 및 일원화
- 작품 저작권 관련 보호 제도 마련

2. 지역 예술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 창작 지원금 내 안무비 비중 강화
- 유휴 공간을 활용한 연습실 지원

3. 예술가가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 지역 내 학생(초,중,고,대학교) 및 시민들을 위한 정례 워크숍 운영
- 지역 내 활동을 위한 조건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구청장 및 각 유관기관장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토론 2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장한심
플레이캠퍼스 대표



이번 포럼 주제는 ‘공공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이다.

기획자로서 위 주제를 다루려면 두 가지를 우선 조명해야 한다. 첫 번째는 ‘문화도시’ 부평은 부평구가 지향하는 이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공단도시’ 부평의 관성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문화도시부평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부평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부평의 집단기억¹⁾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알기로는 부평구는 현재 ‘음악도시 부평’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고, 과거 부평미군부대에 에스컴시티(ASCOM CITY)를 주제로 확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단도시’ 부평이라는 산업도시에 ‘병참기지’ 부평이라는 제국(주의)의 ‘식민도시’라는 정체성까지 중첩된다. 거기에 1997년부터 시작한 부평풍물대축제는 3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농촌공동체’ 부평 이미지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표면적으로는 다원성이 풍부한 것 같으나 새로운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화합물이 아닌 부평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섞여 있는 혼합물로 혼재할 뿐이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부평구가 지향하는 문화 공공성이 공단도시(산업화)의 성능과 질주에서 탈피한 성찰과 정주를 가능케 하는 ‘시민계급’ 형성인지, 제국(주의)의 식민도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체를 위한 ‘시민교육’ 차원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농촌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전통재생’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두 필요한 요소이지만 제한된 예산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와 경중(輕重)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자는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에 따라 기획하고 추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기획비용을 계산한다. 그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과 홍보를 위하여 이벤트도 필요하지만) 문화도시를 내세운 이상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철학과 비전이 우선 필요하다²⁾. 철학과 비전이 없는 곳에서 굳이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려고 기획하지 않는다. 오히려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면 양념과 빵가루가 많고 화려할수록 좋은 기획으로 평가받기에, 결국 대중매체와 중앙언론에 노출되는 인기인 섭외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을 (문화예술의 생산지가 아닌) 유통대리점으로 전략시킨다. 결과는 지역문화예술인은 인기인이 되고자 지역을 떠나 시장이 편중된 서울로 가는 악순환을 가속시키고 지역문화생태계는 고사 위기를 맞는다.

1) 일제의 경인철도 건설로 계양구의 부평향교에서 지금의 부평역으로 도시의 중심이 이동했다.

2) 기획자는 예산 편성보다 정책의 방향성과 지속성을 먼저 본다.

두 번째는 ‘공공=공짜’라는 공식 탈피이다. 문화도시는 축제와 이벤트만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문화복지는 인권(시민의 자존감)을 위한 것이지 문화상품의 무료공급이 아니다.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시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산업과 이를 지탱할 지역문화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음악대학이 없는 도시가 인천이다. 그럼에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과 부평풍물대축제를 기반으로 인천은 음악도시를 표방한다. 근대 개항부터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합창단 문화와 클럽으로 형성된 문화생태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인천 중·고등학교의 전통 있는 음악동아리는 거의 해체 상태이고, 음악문화를 선도한 클럽도 지대상승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폐업 내지 지역을 떠난 상태이다.

부평구는 노동자 계급과 그 자녀들이 태어나 자란 도시이기에 문화예술의 인프라도 부족했고, 접근성 또한 좋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학습과 훈련도 부족했다. 2000년대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접 관람권을 구매하여 공연장에서 연극이나 무용을 관람하거나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는 것은 일상의 여가라기보다 여유가 있을 때 소비하는 사치재로 인식되었다.

문화적 습속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부평구는 60만명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2000년대 중반 한겨레문고, 2020년에는 씩크빅문고가 폐업했다³⁾. 부평구청 옆에 있는 북구도서관은 일제의 행정구획화를 여전히 상징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결론은 이렇다. 이제는 공공의 지원방식을 생산자에서 시민(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시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평문화 또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의 연계가 필수다. 유치원 시기부터 공연장에 와서 줄을 서서 공연티켓을 직접 1000원을 주고 사는 법부터 가르치고, 좌석 번호를 찾아서 앉는 법과 휴대폰 전원을 끄는 예절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들이 관객이 되어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연 후 관람평을 공유하는

3) 부평문고는 거의 문구점으로 연명하고 있다

문화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인천문화계의 비평문화와 비평매체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매개자와 매개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공공 지원방식을 시민 참여의 유인책을 개발하는데 투입할 때이다. 시민에게 관람료 할인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보다 공연에 관한 공적 발언의 기회와 함께 문화예술생태계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생산자들에게도 긴장과 함께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감상평을 쓰는 시민을 육성하는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들 또한 다시 관객이 되어 지역문화생태계의 주축이 될 수 있다.

위 내용은 원론적인 제안이고, 기획자로서 현실적인 제안을 하자면, 예산을 늘려서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면 대신 물리적 시간을 늘려서 제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연하면, 사업의 공고와 확정 등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 선정과 예산 집행이 4월부터 시작되면 상반기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문화예술 단체들의 쏠림현상으로 대관 신청과 관객 유치에 소모적인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복지차원에서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기 도입되고, 문화예술인들의 기타소득세가 4.4%에서 8.8%로 인상되었지만, 예산은 늘어나지도 않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출연료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제작환경이 어려워지자 제작자의 개체 수가 줄고 있다. 연기자와 연주자 등 문화예술의 직접생산자는 언제나 공급과잉이라 할 수 있지만, 제작자가 없으면 결국 연기자와 연주자가 직접 제작의 영역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자본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도태된다. 또한 실체와 본질보다 이미지와 마케팅이 좌우하는 시장주의가 작동하다보니 기초예술 육성보다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도구화로 문화예술이 악용되기 일쑤이다⁴⁾.

공공 지원방식을 생산자 중심으로 하다보면 가시적인 성과물과 계량적 수치를 요구하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을 저해하고 무엇보다 기다려주지 못한다. 시민(소비자) 중심을 위한 공공 지원방식을 지역문화생태계 차원에서 고민할 시점이다. 문화예술의 성과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4) 인천동구는 동구청소년 극단과 동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쓰고 버렸다.

발제 3

부평 마을공동체 지원제도의 변화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FIRST STEP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과 특성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어떤 조직들이 포함 할까.

사회적기업의 모태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목적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 부응	기업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
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 (2012)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마을기업육성지침 (법안 발의 준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0)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SECOND STEP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2012년 협동조합

구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시도지사 허가	주 사업 소관 중앙부처장 인가
사업	업종분야 제한 없음	공역사업 40% 이상
경영공시	무의사항 예외 (연말순이익 2000이상 총자산 총액 30억 이상 인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이상
배당	배당가능(출자, 이용실적)	배당불가
청산	경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귀속
유형	사업자, 직업, 소비자, 다중이해관계자	다중이해관계자



PLUS STEP

마을기업 제도도 활용해보세요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이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가진 단체로서 지역의 문제를 마을 회원들이 해결하는 기업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1차년도 : 5천만원
2차년도(재지정) : 3천만원
3차년도(고도화) : 2천만원

THIRD STEP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기본 요건

1. 조직형태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법인 이어야함.
2. 유급근로자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단, 예비는 해당 없음)
3. 의사결정구조	외부인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를 이사회에 포함 (단, 예비는 해당없음)
4. 정관	1.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명시 2. 이익발생시 수익 배분 및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 조항 명시
5. 재무구조	신청 직전월 6개월 동안 영업활동 수입이 노무비 대비 50%이상 (단, 예비는 해당없음)



THIRD STEP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 2

(모든 사회적기업은 어떤 요건제라도満たす必要がある)

1. 일자리제공형

인증: 신청전월 6개월 동안 평균 유급근로자 3인 고용하고,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예비: 신청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그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취약계층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자 등 / 고용은 주 16시간 이상 정규직)

2. 사회서비스제공형 (예비제)

인증: 신청전월 6개월 동안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예비: 사업계획서 상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단, 사회서비스 업종에 해당해야 함)

3. 혼합형

인증: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예비: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20% 이상

4.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지역 자원 활용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20% 이상 / 사회서비스수혜 지역 취약계층 20% 이상
 나형: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관련 수입, 지출 40% 이상(지역문제 및 해결방안 제시)
 다형: 지역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지원- 관련 수입, 지출 40% 이상

5. 창의, 혁신형 (예비제)

인증: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사업실적)
 예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 (사업계획서)
 @예시분야: 공청무역, 도시재생, 친환경 등



THIRD STEP

(예비) 사회적기업 대표적인 지원제도

(의정적 사회적기업은 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자격요건별 200만원 또는 250만원	2년, 1명	3년, 2명
	일자리창출 지원: 인건(자정 이후 신고 고용 최저임금에 40%취약계층 60%)	2년	3년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이후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비 등 사업비 지원	2년 동안 신청가능	3년동안 신청가능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불가	4년가능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일부	가능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 감면	불가	가능

통합공모

2022. 1. 17. (월) ~ 2. 4. (금) 18시까지

부서명	총사업비	사업유형	지원금액	
자치행정과	180,000	일반형	4,000	
		성장형	5,000	
		기획형 (전환마을)	8,000	
		기획형 (공간 활성화)	10,000	
평생교육과	18,000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1,000	
		40,000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3,000
			마을학교(주민주체형)	4,000
여성가족과	105,000	마을학교(기관 단체형)	5,000	
		마을학교(마을기획형)	8,000	
		여성친화도시조성	5,000	
도시재생과	39,000	일반형	5,000	
		기획형	8,000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50,000	일반형 (문화도시부평)	2,000	

통합 컨설팅

2022. 1. 17. (월) ~ 1. 21. (금) 10~16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2층 대회의실

22.17.(월)	22.18.(화)	22.19.(수)	22.20.(목)	22.21.(금)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문화도시센터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평생교육과 (우수동아리 우수프로그램)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문화도시센터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자치행정과

- ★ 일반형 (3년미만 공동체) , 400만원 이내
- ★ 성장형 (3년이상 공동체) , 500만원 이내
- ★ 기획형
 - 전환마을, 800만원 이내
 - 공간활성화, 1,0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 심화학습형 : 특정주세 학습 탐구 동아리
- ★ 사회참여형 :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 환원
- ✓ ★ 문제해결형 : 지역문제 대응책 연구.실천
- ✓ ★ 취업준비형 : 전문성향상자격증취득
일자리창출

✓ 가산점 항목!!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부평구 평생교육기관(단체)의
우수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활성화

관내 평생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 ★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 ★ 권역별특성화 프로그램
- ★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ex)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성교육,
인문학, 마을, 생태환경, 사회적경제 프로그램 등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부평마을학교

- ★ 주민주체형 (22차시 이상), 400만원 이내
- ★ 기관·단체형(24차시 이상), 500만원 이내
- ★ 마을기획형(40차시 이상), 8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평생교육과

★ 주요사항

- 부평구 관.내 교육장소 의무확보
- 참여학생 10명이상, 1인 1개 마을학교 참여
- 주강사비 1시간 4만원(초과3만원)
- 보조강사 1회(2시간이상)3만원
- 임차료는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 간식비는 지원금의 5%이내 편성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통합공모사업

여성가족과

누구라도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도시

평온한 도시

평등한 도시

평안한 도시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통합공모사업

여성가족과

★ 평온한 부평 (함께 돌보는 도시)



★ 평등한 부평 (나누고 참여하는 도시)



★ 평안한 부평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관심에 끌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관심에 끌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 일자리 창출
- ★ 지역상권 활성화
- ★ 지역상권 확산 프로그램
- ★ 보행환경 개선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관심이 높을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관심이 높을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일반형 (도시재생), 500만원 이내

★ 기획형 (상권활성화), 800만원 이내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도시재생과

★ 주요사항

- 단체란?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 등록단체
- 대상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내
- e나라도움 사용 필수!!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문화도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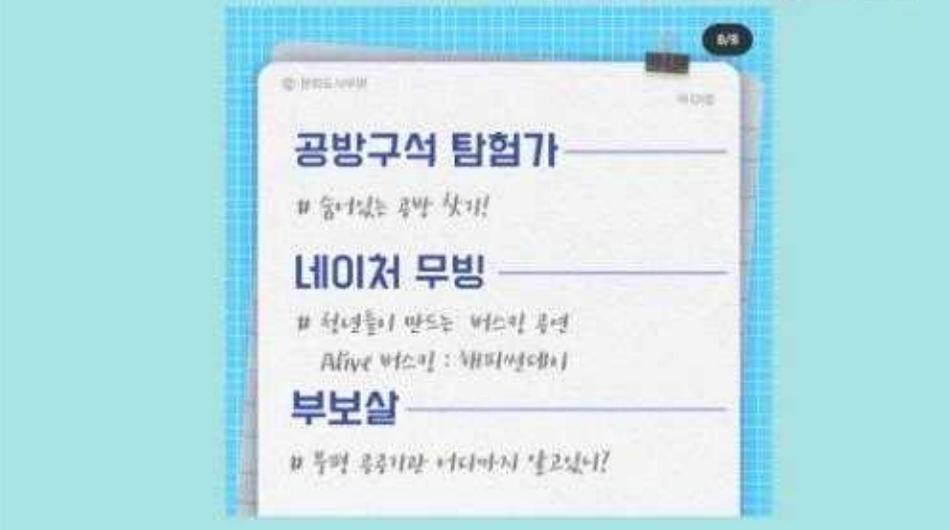


2022 주민주도

주민의 참여가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모사업

문화도시센터



1-1 문화예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문화예술과 사회발전의 관계에서 문화예술은 경제적 혜택과 금전으로 치환되지 않는 비금전적 혜택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 사회발전을 “진흥”시키고, 사회의 효과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행동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음. (유네스코, 2012)

▶ 문화예술은 사람들의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음

1-2 문화예술 기업/조직 공동체

○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조직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 중간 형태의 제 3섹터라고도 한다. 즉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 간의 중간 형태로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이라고 지칭함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기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등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지칭하고 있음

2-1 문화예술 분야 인천시 사회적기업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전체 241개소, 인증 사회적 기업 170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1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은 문화예술 20개소(예비 6개소, 인증 14개소), 출판 영상, 도서 11개소(예비 6개소, 인증 5개소), 교육서비스 24개소(예비 11개소, 인증 13개소)로 나타남

▶ 세부업종을 보면 문화예술은 공연기획 및 행사대행 6개소, 공연예술 3개소, 문화예술 기획, 공연 3개소 등이며, 출판 영상, 도서는 영상물 제작 4개소, 도서판매 3개소이며, 교육서비스는 공예 및 숲 체험 3개소 등이 높게 나타남

2-2 문화예술 분야 인천시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558개소, 일반협동조합 460개소, 사회적 협동조합 98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1월 현재 인천시 마을기업은 전체 60개소로 예비마을기업 4개소, 육성형 마을기업은 56개소로 나타남

○ 2020년 12월 기준 인천시 사회적기업(236개소47) 총매출액은 189,936,822천원이며, 평균 매출액은 825,812천원, 중위값은 342,335천원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평균매출액 210,246천원, 출판 영상, 도서 730,150천원, 교육서비스 184,188천원으로 나타남

○ 2020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시장별로 구분해보면 문화예술은 공공시장에서 90,362천원, 민간시장에서 119,884천원, 출판영상, 도서는 공공시장에서 140,741천원, 민간시장에서 589,409천원, 교육서비스는 공공시장에서 98,924천원, 민간시장에서 85,264천원으로 나타남

▶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민간시장 대비 공공시장 매출액 비율을 보면, 인천시 전체 사회적기업 37.7%, 문화예술 43.0%, 출판영상, 도서 19.3%, 교육서비스 53.7%로 문화예술 및 교육서비스 업종은 공공시장 의존성이 높은 편

2-3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조사

○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 결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52.9%), 협력. 협업 증대(40.1%), 대외적 인지도 제고(21.1%), 조직문화 개선(20.6%) 등이 성과로 나타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2020년 인천시 재정심사에 참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에서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지표3)에서 문화예술 분야 11.4점(1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

▶ 협력. 협업 증대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수준을 측정기준으로 배점은 5.7점(10점 만점)으로 같은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

▶ 조직문화가 개선은 비영리 문화예술 임의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면 조직이 안정화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남

2-4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개선사항

○ 지원사업 개선사항은 인건비 확대 및 인건비 연장, 사업개발비 확대,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공헌 및 문화마케팅 등으로 나타남

○ 향후 필요한 부분은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한 비즈니스 확장,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기준 마련, 문화예술 분야 성과지표 개발, 공공기관 지원 등으로 나타남

○ 대표자 간담회에서 "프로그램 공모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 "프로그램기획비 지원이 필요",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 필요", "컨설팅 중심 심사방법 개선", "심사기준 명확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향후 인천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인천문화재단에게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강사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비,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훈련비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공헌 사업(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조직과 후원기관, 기업 등 메세나 활동의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성과가 좋은 사업을 스케일업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내에 사회적경제 전담직원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3-1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결론 1

-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의 재정지원기간이 끝난 사회적기업들에게 계속 지원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중 '재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비영리임의단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 내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수준이 활발하고, 조직문화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임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
-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의존성이 높고, 평균임금도 낮은 편으로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
 - ▶ 최근 기업들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가 경영화두로 등장하여 이 부분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3-2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책 결론 2

- 인천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많은 편으로 나타나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 현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4개 국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천사회적 금융 활성화 공동기금(I-SELF)에 지방공기업 및 인천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사회적 금융 확대가 필요함
- 단순한 공모사업보다는 협력 및 파트너십 활동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예술분야 사업이 필요하며, 문화예술 분야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 공모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공모심사를 컨설팅 심사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 문화예술 조직과 후원기관, 기업 등을 연결이 가능한 매세나 창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동안 성과가 좋은 사업은 스케일업 방식으로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발제 4

전주시 사회혁신사업과 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

원 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목차

-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 2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 중간지원조직
- 3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 네 가지 제안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국정과제 8-3 | 177일 밀착
사회혁신 기반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정책 공동생산자로서 주민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혁신 기반·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 제고 ”



주민 주도 지역혁신활동 지원

(국비 50% 경상보조 연 20억 기본 3년)

-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집주, 대안 등)
-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리빙랩 등)
- 저임학대+거버넌스 (컨퍼런스, 포럼 등)
- 혁신사례 연구 (지역문제해결 이야기)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국비비 50% 설계 리모델링 등)

- 18년 김원춘천시, 전북 전주시
- 19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 20년 충남 천안시 (7년), 울산광역시

* 지자체 공유지 ... 평균 면적 3,220㎡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미션/비전/핵심가치



+ CORE VALUE



01

시민주도성

시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경험할 지원



02

연결과 협력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다양한
주변의 선진단체를 연계 지원



03

적극적 다양성

동양은은 사회구조 속에서 시민들은
대상이 지위사지 정도를 발굴·지원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연혁

연도	주요 행사
2018.1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인준(제2018-124 호) 55+시니어지원재단(55+SI) 설립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사회적경제 포럼 3월 2019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지원사업 - 55+시니어 지원사업 4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7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8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9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0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1월 2019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5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6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7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8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9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0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1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2월 2020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2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3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4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5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6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7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8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9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0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1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12월 2021 사회적경제 포럼 - 55+시니어 지원사업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Seoul City Innovation Center
서울도시혁신센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합니다

① 사회혁신 거점 공간 운영 및 활성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열정을 사회혁신의 거점 공간으로서 지원하고 교류함으로써

- ▶ 사회혁신주, 사회적기업, 청년 및 청년스타
- ▶ 사회혁신기업, 입주 기업, 교육 운영

② 상생형 실천 선미혼 재구성

연대문화사업 연인도인미혼 재구성하고 상생형모자를 확산

- ▶ 연대 문화 예술형
- ▶ 연인도인사업
- ▶ 상생형 소규모기업 지원
- ▶ 상생형 교육형

③ 혁신활동 지원 (지역 일자 창출 실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이 다양한 실험을 지원

- ▶ 시민도인도입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 ▶ 혁신 거점 공간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④ 자변화대·외국 발원 및 거버넌스 구축

사회혁신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확장

- ▶ 자변화대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⑤ DB구축 및 아카이브, 홍보

사회혁신의 성과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성장

- ▶ DB 구축 및 홍보
- ▶ 아카이브
- ▶ 성과 창출기 지원사업

⑥ 직원 역량 강화

사회혁신을 위한 센터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원활동을 도모

- ▶ 직원 역량 강화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 ▶ 사회적기업(주) 지원사업

Part 1.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소개

사회혁신전주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회혁신이다

주최	2022. 7. 16
주최처	전주시사회혁신센터(주)
장소	11층 (가. 11층)
주최처	전주시사회혁신센터(주)

청음 전주
COMMON FIELD

혁신의 열매와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열린 공간

주최	2022. 11. 18
주최처	전주시사회혁신센터(주)
장소	11층 (가. 11층)
주최처	전주시사회혁신센터(주)



Part 2,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중간지원조직 등장의 배경>

| 사회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의 변화

❑ 1980년대 영미 중심의 민영화 속에서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등으로 비영리단체 등이 국가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참여

· 한국사회 역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 유형 중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약 42%를 차지

❑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경향은 보다 큰 범위를 포괄하지만, 한국사회 중간지원조직 논의는 그 중 일부에 집중

· 민관협력 분야에서 행정의 기능 및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성격에 국한하여 중간지원조직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

❑ 중간지원조직의 성장배경은 다양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변화라는 틀에서 유사(장병순, 황현실, 2018)

· 영국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도입을 통해 기반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 등장

· 미국은 지역자선단체(Charity Organization Society)의 중복적 활동을 조율 지원하는 기반조직으로 출발하여 NPO센터 네트워크 등으로 본경화(조현민, 2016)

· 일본은 시민단체 지원을 위한 NPO법(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 제정 이래 설립된 NPO 지원센터 등으로 출발(송두원, 2011)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개념>

-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거버넌스(협치)의 고리,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희망제작소, 희망이슈, 2016)
-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서울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2019)
- 다원적 사회의 공생과 협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역사회와 NPO의 변화와 수요를 파악하고 인재, 자금 정보의 자원제공자와 NPO의 중개, 포괄적 의미에서는 각종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조직(중간지원조직 현황과 과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일본 내각부)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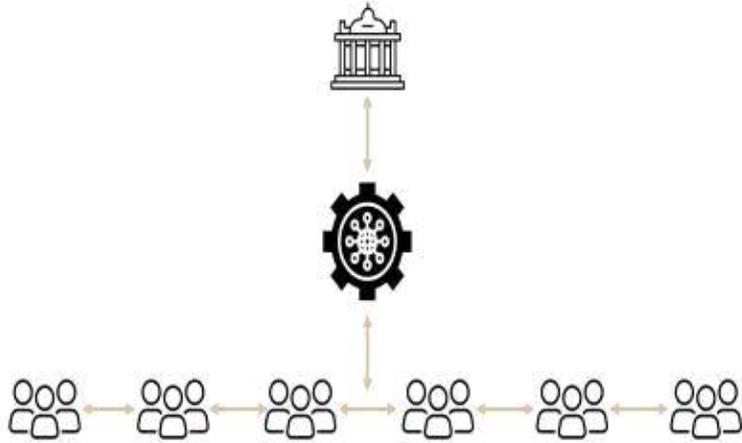
주요 역할	세부 역할	주요 역할	세부 역할
연결자 (coordinator)	networking 교육-네트워킹 bridging 지역인력, 문화, 종교, 연령 coordinating 센터 간 이해 조정, 협력 촉진	중개자	- 의사결정 정책과 절차의 집행자 - 정책 모니터링, 피드백 - 정책계단
지원자 (supporter)	incubating 인큐베이션 assistance 기술적 지원의 공간 지원 capacity building 활동가 및 조직 역량 강화	조정자	-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성 - 이해관계자 간 자원의 연결과 조정
생태계 조성자 (enabler)	archiving & information sharing 지식-정보 수집 및 공유 research 조사연구-실험지원 advocating 국제 설정 및 중추 대변	역량 구축자	- 정보수집 및 제공 - 구성원을 정보공유에 훈련 - 조사연구 - 상담 및 컨설팅

서울연구원,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2019

한국사회연대협력 지원본부(이하 제1차 사회적경제 공동육산 사업단)작성 및 2017 회 개신화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현장과 행정의 중간에서



“현장/시민에게 더욱 가깝고 싶은, 행정과 현장/시민의 중간 어디쯤”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 사업의 혁신성과 시민성 기반 약화, 구성원들의 불안전성과 같은 단점(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짐

©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Part 3.
 지원사업방식의
 변화와 혁신
 -네 가지 제안

Part 3.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 진입장벽 낮추기

- 신규 주체(청년 등)들의 등장 / 무정산
- 시민들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방식과 흐름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험 지원(브랜딩 등)
- 결과·성과의 정리가 아니라 과정의 기록

• 유관기관과의 사업 트랙 만들기

- 사업공유 및 정보교류, 공동사업 모색
- 참여 시민-의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양한 지역사회 이슈 공동 대응

네 가지 제안

•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 사업 기획과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
- 참여 효능감 제고

•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조건 조성

- 사업의 유형과 현실에 맞는 고용 가이드라인 적용
 - MZ세대들의 등장
 - 체계적인 HR 운영 및 관리

©Saehyeon Yu, Saehyeon's PowerPoint

Part 3.

지원사업 방식의 변화와 혁신

사회혁신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총 참여자



10,452명

(전주 청년인구의 8%)

신규 주체 비율



68%

연속 연체수



58건

(위·청법, 타지역 청년 유입)

“자기 삶의 주체로 지역에 남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경험을 토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나갑니다.

토론 3

이상적인 자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동네에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용우
동네야 놀자 사무국장



동네 생활 속 문화는 동네축제, 음악회 그 외 다양한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마을 공동체 동네야 놀자에서도 문화는 주민들과 만나 중요한 소통의 매개입니다. 마을축제 20년, 바자회10년 그 외 소소하게 청소년 데이와 베란다 콘서트 그리고 노래교실, 민요교실, 마을 합창단과 같은 문화생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네야 놀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문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우선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지는 활동은 축제와 바자회입니다.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단위들이 모여 우리 동네를 위한 작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문화예술인을 초대하고 같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이런 경우 동네 안의 문화인도 그 축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여 공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공연 참여하는 인원이 많은 활동도 그 단위 자체로 해결하기에 축제를 참여하는 단위도 그 공연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서로서로 응원하며 친밀감을 확인합니다.

그 외 문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베란다 콘서트와 다양한 문화교실입니다. 그런 활동은 문화예술인에게 소소한 경제활동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은 천차만별입니다.

문화교실의 강사비는 시간당 적게는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공연의 경우 무료부터 50만원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물며 같은 부평구의 지원 사업만 보더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다르고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다릅니다. 거의 같은 활동인데도 지원부서의 사업에 따라 강사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저희 같은 경력 있는 단체인 경우는 지원사업으로 동네에서 활동하는 문화강사를 초대할 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지원받아 이 정도 강사비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초대합니다.

그런 경우 문화강사님들이 거의 이해해 주시지만 가끔 이해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그런 경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연의 경우는 더 다양합니다. 무료 공연부터 50만원까지 경력과 능력, 인지도에 따라 책정하지만 지원사업의 경우 공연비는 거의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가 전부입니다.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지원금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공연비는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 지원금 이외 공연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가끔 지원금도 자부담비도 없을 경우가 있어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가수를 초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를 하려 하지만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운하지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예술노동자로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활동이 그의 경제 활동의 전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저 자신을 보일 수 있는 무대가 소중하지만 차차 연차가 쌓이면서 그의 가치가 올라가면 동네 안에 소소한 무대는 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네 안에서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주제에 맞게 상상을 해봅시다.

1. 지역 안에는 생활예술인을 꿈꾸는 사람이 많고 그런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단위도 많습니다. (다양한 마을축제, 마을총회, 서회적 경제축제의 장 등등) 그런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지역 안의 생활예술인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단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들도 좋고 생활예술인도 좋을 테니까요.

2. 그리고 그런 단위는 생활예술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양한 분류로 신청을 받고 그에 맞게 공연을 연결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여 기획하는 단체가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는 연결해주는 기관이 차액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그럼 보다 더 다양한 생활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다양한 예술인을 접할 수 있을테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 운영의 묘미와 기획의 평등이 있어야 겠지요.

막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생활예술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고 그저 생계 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3.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 예술인의 길을 꿈꾸고 동네 안에서 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 있을지 않을까요? 그저 상상해 봅니다.

동네 안에서 보다 더 많은 문화를 나누고 소비하게 위해서 ...

토론 4

민간단체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1. 발표자 소개

-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유형민
- 2021년 일사천리 공모사업 수혜
- 2022년 꽤 쓸모 있는 도시실험 공모 진행 중

2. 부평구 문화재단 공모사업을 통하여

- 2021년도는 문화에 대한 의식 없이 공동체 활동으로 접목
- 2022년도는 도시농업과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도전

3. 지원사업 경험과 의식 변화

- 경험이 없던 첫해 보고서류 작성이 피곤, 그러나 쉽게 적응
- 첫해에는 지원사업 예산기준이 사업비(재료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개인이 지출하는 활동실비 보상이 없어 불만족.
- 두 번째 해에는 문화재단에서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재단의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 만족하고 있음.

4. 앞으로 바라는 지원 사업 방향

- 지원수혜자(단체 대표)가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실비 보조(교통비, 식대비 등)까지 지원된다면 좋겠지만,
- 지원 사업을 하면서 바라는 점은 지속성임. 귀하게 만난 이웃들과 1회성 사업을 하면 문화의 축척도 한계가 생김.
- 문화재단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2~3년 지속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발제 5

인천문화재단 공간지원 사례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01. 공간을 지원합니다.

문화예술단체공간지원사업

- 2011년 실시
- 시민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 1개 단체, 1회 연장하여 4년 지원, 임차보증금 지원

생활문화지원사업 <동네방네 아지트>

- 2017년도부터 실시
-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는 공간 운영자 대상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공간당 최대 250만원 지원
- 인천시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재단의 '작은예술공간지원사업' 등 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

01. 공간을 지원합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 창작활동 공간(작업실, 연습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예술인 및 단체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12개월 간 월 임차료의 50%, 1개소 당 최대 480만원 지원

02.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권역 내 유휴공간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예술그룹 및 단체
- 지원항목 : 공간 임차료, 공간 수선비 및 프로그램 진행비
- 사업권역 : 중구·개항장 일대

■ 지원 내용

- 단체별 지원금 평균 2500만원
- 최대 3년 지원(계속지원 심의 진행 후 결정)
- 지원금 사용 범위 가이드

구분	내용	한정금액 범위
공간임차료	상차임금, 임대료(2개월), 공간수선비	한해 지원금의 최대30%
가방 프로그램비	제작비, 장비임차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	한해 지원금의 최대70%
월급 프로그램비	기본 급여(2인/1인)의 월급 기최 프로그램비	

02.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사업 <점.점.점.>

■ 지원 현황

- 총 13개소 조성 및 운영 중
- 2022년 청년 점점점 사업으로 7개 팀 선정 완료

<점.점.점.> 사업권역 및 창작공간 위치



<점.점.점.> | 1기



<점.점.점> | 2기



<점.점.점> | 3기



발제 6

인천서구 공간지원 사례 공간거점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팀장





- 1

사업개요

사업추진개요
모집 및 워크숍 개요
사업목표
- 2

사업내용

개별 프로젝트 개요
개별 프로젝트 및 활동내용
워크숍 결과
- 3

공모내용

세부모집내용
장르별 예시
예산편성
- 4

추진결과

사업추진결과
참여 동아리소개
총평
- 5

향후추진방향

지역공간 활성화 및 사회공헌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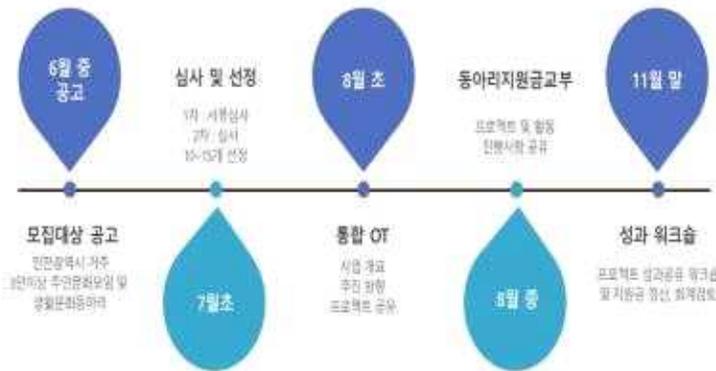
사업추진개요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간거점 주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모집 및 워크숍 추진개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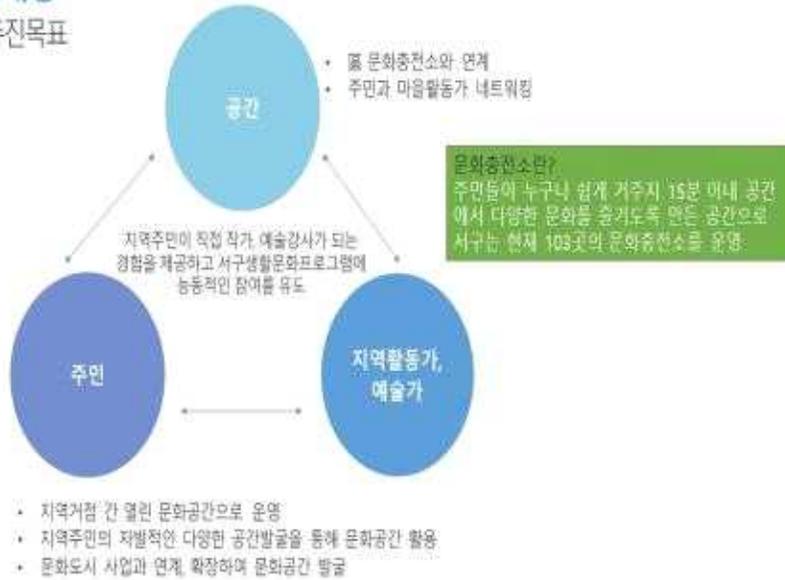
사업추진개요 및 추진방향

(재)인천서구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간거점 주민문화 활동 지원사업

<p>개요</p>	<p>주민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공간 발굴과 공간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생활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p>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주체 발굴 : 주민모임 및 공간발굴, 지역 내 문화 주체를 확대 ✓ 생활문화 확장 : 주민들의 일상적 소규모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 정주성을 높임 ✓ 네트워킹 : 서로의 생활문화공간을 공유하며 새로운 문화활동의 기회제공

사업내용

사업추진목표



공모내용

세부모집내용

모집대상	지역의 문화공간 발굴하고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활동을 할 3인 이상 주민 또는 생활문화동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서구 거주자 60%이상으로 구성 ❖ 지역주민 활동을 위해 공간개방 의지가 있는 문화공간
모집인원	15개 내외
지원규모	모임(동아리)당 문화활동비용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생활문화란?

- 1)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
- 2) 예술장르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문화 활동

공모내용

생활문화동아리 장르별 예시



공모내용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예시

문학, 공연, 전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개질에 재능이 있는 주민A가 동네의 △△공방에서 이웃들과 함께 뜨개질 수세미 만들기 ✓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모여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그림책 만들기 활동 ✓ 색소폰동아리가 강사를 섭외하여 □□연습실에서 활동발표 준비 ✓ 미술동아리가 ○○카페를 대관하여 작품전시회 개최
체험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을 거점으로 정기적인 주민모임을 개최하여 동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도출하여 주민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투기 장소 화단을 조성하는 캠페인 진행 ✓ 비건문화를 지향하는 주민B가 ▷▷공간에서 이웃들과 함께 채식 식단을 공유하고 동물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 만들기 활동을 통해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의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 ✓ ▽▽공간에서 반려동물 및 반려식물 관련 정보를 나누고 마음의 휴식을 얻는 활동 ✓ 동네의 작은 공방에서 이웃들과 함께 폐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공모내용

예산편성시 주의사항

- ✓ 감사비 전체 사업비 30%이내, 암차료(대관료 등) 전체사업비 50% 이내 편성
- ✓ 공간 방역비 전체 사업비 20%이상 필수 편성
- ✓ 주민모임(동아리) 구성원 인건비 지급 불가
- ✓ 최종 지원금은 심의과정에서 결정
- ✓ 사업종료 시 사업비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제출 (정산자료 마비 시 지원금 환수)

코로나 상황에 따라 2021년도는 20% 방역비 필수 편성
2022년도 사업은 5%이내 방역비 편성.

※ 그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방법이 생겼으며 방역에 대한 물품출 공강운영자들이 상시 비치해 놓아
2022년도 사업은 5%이내에서 방역비 편성 함.

추진결과 요약

추진결과 2021년(참여동아리16개, 참여인원112명)

연번	동아리명	활동공간	참여인원	활동분야	활동내용	활동지역
1	현명현명	가우저지	3명	생활공예	앞치마, 쿠션, 아이치, 케고백 등 미션을 활용한 생활공예	심곡면회
2	역마인	민들레 학문도서관	3명	미술(화화)	수채화, 유화 등 장기적인 미술 활동 및 전시회 관람	검단
3	참모도	대중아트홀	4명	연극	인생 첫 경기를 도전하는 시민(배우들이 만드는 연극 '날서이연의 군단' 제작	검단
4	지바고	대중아트홀	5명	연극	'인기드라마 '미스미션사건' 을 벤치마킹한 오디오극 '블로트션사건' 제작	검단
5	수목이	문화공간가우	12명	음악 (오쿠합레)	우쿠렐레 수업 및 외부 공연활동	검암중서
6	날진리요	문화공간가우	5명	음악(기타)	기타 수업 및 외부 공연 활동	검암중서
7	느낌표	차의 차장	9명	교육 및 체험	그림책을 읽고, 영락, 과학, 미술, 전통 놀이 하기	가좌
8	wit클	기치하이커스	13명	오리	가족과 이웃의 정을 말한스를 위한 '살인드' 함께 만들기	가좌
9	이미미즘	서구지역의집	4명	비건문화활동	서구지역 학생들과 함께 비건교육, 채식법상 체험 및 전시회 만들고 전시하기	석남
10	은나노	법복장가장, 하일교육협동조합	17명	보드게임	서구 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보드게임 제작	검암중서
11	일일연락	대강이별지	4명	생활공예	힐링 공예(테라리움) 통한 주민 소통과 힐링 체험	석남
12	유이	기치하이커스	7명	음악 (오쿠합레)	우쿠렐레 기초 교육 및 연주 연습	가좌
13	어쿠톤합창	나래(생태공원)	4명	생활공예	꽃리쿠니, 꽃다발, 천연염색 스카프 및 술 만들기	가장신현
14	조물이리	노유인교회3집	4명	생활공예	제로웨이스트 생활공예	가장신현
15	클랑	휘후화화	3명	음악(합창)	합창리 연주 활동	석남
16	스마일	파란	5명	반려동물	반려동물 키우기 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치유 활동	석남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지바고

연극

- ▶ 활동내용
 -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동아리
 - 연극드라마 '미스터신사관'을 소개하며 발표동선서한이라는 드라마를 오디오무극으로 제작
- ▶ 활동결과
 - 옥소리 연기가 모디안 진행중인 10명치음 9명연출
 - 연극드라마 '미스터신사관'을 소개하며 발표동선서한이라는 드라마를 오디오무극으로 제작
 - 오디오무극 제작 후 갖은 갖게스트 개시

활동사진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은나노

보드게임

- ▶ 활동내용
 - 시구의 문화를 전파하여 지역을 활용한 보드게임 제작
 - 서구 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특강 진행
- ▶ 활동결과
 - 인천서구 생활문화축제 참여
 - 학생초등학교 보드게임 강의 진행
 -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사진



추진결과 요약

참여 동아리 소개

스며들	활동사진
반려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 반려식물을 통한 교감과 워킹, 공감등의 감정을 공유 • 장미허브, 에델바이스, 몬스테라, 핑크아욱, 유채, 질트리, 루스마리 키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결과 • 월4회 반려식물에 대한 느낀점 공유 • 식물을 지역주민에게 나눔활동 	

사업추진결과

홍보영상촬영 성과공유회

- ◆ 활동 종료 후 동아리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동아리 소개 및 공간 소개 홍보영상 제작 후 재단 유튜브에 업로드

자료사진





사업추진결과

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아리 활동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 개최 및 영상 배포

자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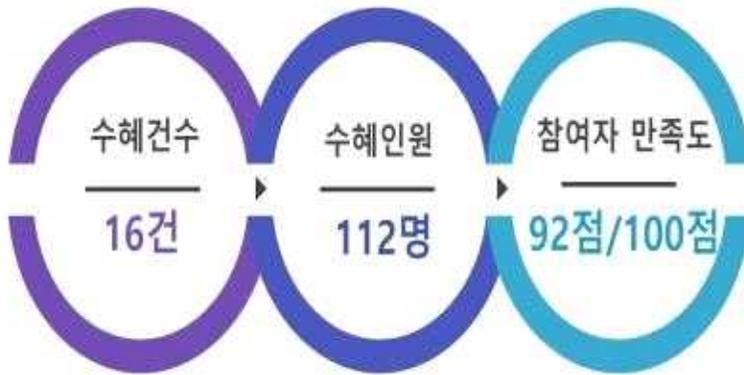
추진결과

2021년 사업 추진 활동 교류<네트워킹>

기간	총 3회
참여인원	총 40명(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공간면적당 인원으로 제한)
주요논의	활동현황 및 활동공간 공유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간의 네트워킹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의 현황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킹 필요✓ 코로나19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방법 및 전시회 또는 영상 대체 논의

추진결과

2021년 사업 추진 결과



총평

2021년 사업 추진 결과

- ✓ 생활문화동아리(주민모임)간의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활동교류 프로그램 구성 필요
-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및 지원금의 정확한 정산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른 지원금 사용법과 정산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회계 전문가 교육 필요
- ✓ 사업참여자들을 위한 온라인 매신저 단체방을 개설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음. 온라인 매신저는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아리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재단의 생활문화사업을 홍보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향후 추진 방향

지역공간 활성화 및 사회공헌



Appendix

홍보&영상물



토론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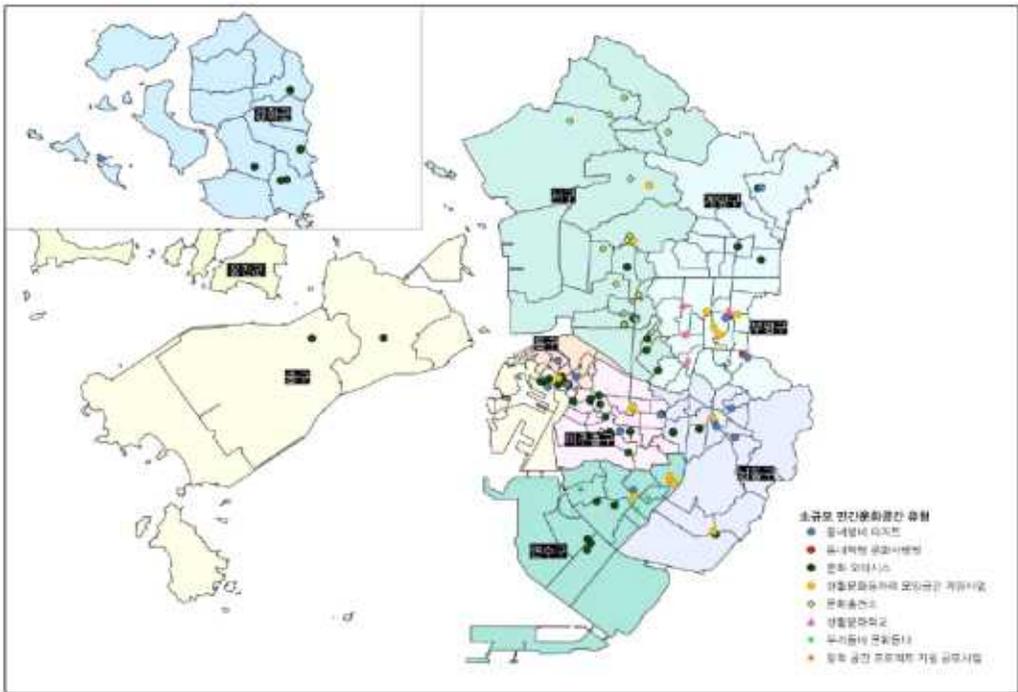
기획자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청산별곡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인천시와 문화재단, 각 지자체의 공간지원사업이 문화도시와 함께 확대, 세분화되고 있다. 지원사업이 양적으로는 늘어났지만, 지역별, 분야별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간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를 생산하는 기획자의 입장에서 이름만 바뀐 지원사업엔 더 이상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 수년째 공간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행정의 속도는 느리고, 신뢰를 쌓지 못한 민.관은 지원 대신 지적이 한몫한다. 공공의 지원사업은 지지와 도움보다,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약 대신 독이 되고 있다. 공적지원을 포기하는 단체들에서 공간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고민을 찾을 수 있으며, 이상적인 지원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민간문화공간지원사업 간담회 자료 참조>

지역문화공간들은

1. **형태:** 복합적이고 융합적이며, 다각적인 유형으로 활동
2. **역할:** 문화 예술적 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역할
3. **기대:** 전문예술창작보다는 지역성을 띤 교류(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의 문화향유 및 문화확산

4. 지원방식 및 범위

- 행정의 간편화_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및 서류의 간소화
- 지원금액의 확대_ 사업 기간에 맞는 지원금액 및 활용범위
 - 공간지원사업으로서 공간 활용과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부재
- 지원대상의 명확성
 - 예술 창작자를 위한 지원인지, 기획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인지 불분명
- 지역, 행정, 문화매개자의 협업 및 역할분담
 - 문화공간의 욕구 파악을 통한 각 지자체(재단, 시.군.구)의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
- 지속가능성
 - 년차별 특화된 지원방식 모색
 - 1년차 행정 정산/ 2년차 홍보, 운영인력/ 3년차 지역간 네트워킹
 - 지원 이후의 지속가능한 수익구조의 필요성
- 자율성
 -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평가(평가방식의 고민 필요)를 통해 다각적인 자율성 확보
- 경험과 노하우 공유
 - 유·무형의 자원 재생산
 - 대안적 지원사업 설계 가능

토론 6

예술가의 이상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과 상상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1. 강현구_싱어송라이터, 사운드아티스트, 문화기획자

- ◆ 싱어송라이터_문화예술활동 전반에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이미지. 1st 디지털 싱글 '열우물길'(2016), 1st EP 워터프루프(2022) 등.
- ◆ 사운드아티스트_2018년부터 사운드스케이프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 2018년 인천문화재단 지역특성화사업 삼산해오름공부방, 2021년 부평사운드에피타이저 등.
- ◆ 문화기획자_문화공간거북이밥(서구.2020-2022) 운영. 부평기반해인기획, 인디레이블 시인의사회 대표.



2. ???

- ◆ 예술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인가.
- ◆ 예술활동을 통한 경제활동은 결국 불가능한가.
- ◆ N잡러로서 예술을 통한 자기실현이 가능한가.
- ◆ 지원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 ◆ 왜 지원사업은 대표자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가.
- ◆ 지원사업 기획, 운영, 정산, 결과보고 모두 독박으로 끝내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 ◆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뒤 다신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왜 또 문화재단을 기웃거리나.
- ◆ 그래도 순기능을 이야기한다.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6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금(300만원)

첫 디지털 싱글 열우물길 제작

정산 절차 없음. 창작 계획서 및 결과자료 제출

2018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지원금(300만원)

서울 신촌 인디톡 좋아지다 공연 및 어쿠스틱 기타

구입, 공연 계약서 및 포스터 제출

-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6 인천문화재단 바로 그 지원(100만원)

열우물길 뮤직비디오 제작

- 청년예술가의 창작아이디어에 지원

PPT 발표의 중요성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18 인천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300만원)

3th 디지털 싱글 별면지 음원, 뮤비 제작

- 적은 예산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예술창작활동

2020 서구문화재단 예술단체활동지원(400만원)

4th 디지털 싱글 전기장판 음원 및 뮤비 제작

- 서구 원도심 석남동 뮤비 로케이션 촬영

- 지역 확산부족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기반 지원사업

2020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1,500만원)

15명 시민참여, 3팀 전문예술멘토 7곡 완성. 유비 5개.

기획비 50만원*2명 가능.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기반 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동네방네아지트사업(250만원)

공간활용지원금있음(12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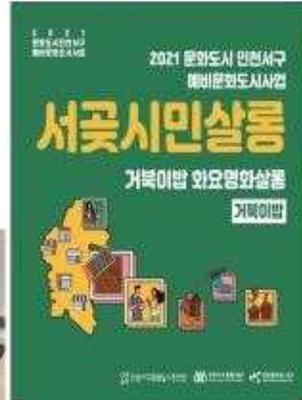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기반 지원사업

2021 서구문화재단 서곶시민살롱 100만원

활동비지원으로 정산 절차 간소화.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 공간기반 지원사업

2021 oo문화재단소사업 250만원

보조금 회계처리과장 복잡.

◆ ① 단원사업추진계획수립(전체계획)→② 계약제결(원인행위)→③ 납품 및 검수 ④ 지출공역서 작성 및 대외지급 ⑤ 회계장부업과

◆ 보조금 집행 및 증빙서류

◆ [붙임 2] 지출결의서

◆ [붙임 3] 회계장부

◆ [붙임 4] 감사(출연)비 지급 확인서

◆ [붙임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 6] 감사(출연자) 이력서

◆ [붙임 7] 증명 사진 자료

◆ [붙임 8]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근무확인서

◆ [붙임 9] 출장결과보고서



3. 지원사업을 통한 작업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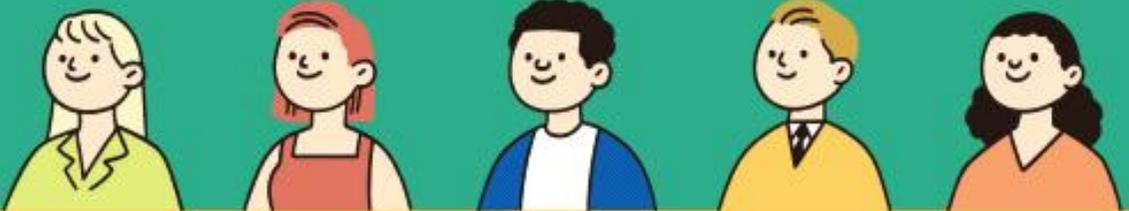
- ◆ 공간 기반 지원사업
2021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별곳(500만원)
회계정산보고, 결과보고 간소화
기획비 예산의 15%
공간지원금에 대한 고민



4. 고민과 상상

- ◆ 대표자 및 기획자 인건비적정한_예산배분 필요
- ◆ 정산 서류의 방대한 양_간소화 필요
- ◆ 인천연고, 지역연고 사업의 폐쇄성_새로운 창작자가 작업할 환경조성
- ◆ 부평 레지던시 및 예술창작공간 지원사업 부재_부평에서 머물 시간이 더 늘려야 함
- ◆ 부평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부재_다양한 지역의 이야기 창작물로 표현
- ◆ 지역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부재
- ◆ 문화예술 워크샵 부재

녹취본



김유정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팀 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센터 시민팀장 김유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22 문화도시 부평 포럼 공공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포럼에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포럼은 금년도 진행 예정인 시민집담회 4회, 시민포럼 2회, 그리고 정책 포럼 2회 중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정책 포럼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2021년도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일반 시민과 예술가 및 '부평 별곡'과 같은 공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행 방식이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 충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효율적인 사업 방식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원 방식의 흐름을 이해해 주실 분과 지역 내 공공지원기관의 담당자 및 지원을 받는 다양한 기관 단체의 관계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요자 중심 공모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2022 문화도시부평 포럼 공공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포럼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일부 도시 예술 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와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 3부인 공간 지원의 서사와 사례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 발제와 토론 후 각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앞서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센터를 맡고 있는 황유경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 35도 아침에 예상된다고 하는 이 더위에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나 기존에 해왔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작은 변화들을 지금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평의 지원 방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의 활동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면서 공공 지원을 공공재이자 공유재라는 의미로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의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나 처음 얘기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문화도시부평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2016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으로 음악도시 사업을 추진을 했습

니다.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 해인 20년도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었고, 그 성과로 2021년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은 법정 지정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냥 문화부 하나의 사업 중 하나였고 그 다음 지금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지정받아서 현재는 3차까지 진행돼서 전국에 18개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부평구는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에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전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서 올해부터는 시민 공모를 통한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 부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워서 가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이 정말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본 포럼은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인사말에 이어 지금부터 좌장이신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희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오늘 2022 문화도시부평 정책포럼 첫 번째 공공지원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좌장을 맡은 부평구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고동희입니다.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다양한 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지원이 충분한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방식이나 대상을 점검하면서 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부평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이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방식이 유용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평문화도시센터에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지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또는 수요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또 기관이나 혹은 사업 담당자의 한계는 없는지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부로 도시 예술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인데요. 발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상진 전문가님 발제 듣겠습니다.

1부. 도시, 예술지원 분야의 지원 방향

유상진 전 경기도청 문화전문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상진입니다. 부평이 문화도시잖아요.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많이 언급된 용어가 공정 정의 이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질문을 던집니다. 플룻이 하나 있는데 이 플룻을 누구에게 줬을 때 가장 정의롭고 합당하냐. 보통 대답 3개가 나오는데 플룻을 만든 아이, 두 번째 플룻을 잘 부는 아이, 세 번째 플룻을 불고 만들진 않았지만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처음 접해보는 아이. 어떤 아이에게 던졌을 때 주었을 때 플룻을 주었을 때 가장 합당하고 정의로운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번째 아이한테 줘야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플룻은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즐겼을 때 플룻을 만든 목적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적성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 아이 줬을 때 정의롭고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마티아 센'는 다른 얘기를 해요. 정의의 기준은 선연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티아 센에 의하면 세 번째 아이에게 줘도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예술 지원의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예술을 지원했을 때 정의롭고 합당한가 이런 얘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부평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지원을 했을 때 비슷한 맥락으로 가정을 한다면 플룻을 누구한테 주었을 때 가장 정의로우니까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부평구나 인천시일까요. 아니면 부평구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에서 정할까요. 아니면 세 번째 부평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네 번째 부평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가장 정의로운가를 결정하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부평구나 구의회가 정해서 내려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주 권위 높은 훌륭한 예술가분들이 오셔서 그 기준을 제시

할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부평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분들이 모여서 그 기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시민분들이 모여서서 예술가분들이 모여서서 부평구나 문화재단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서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을 결정했을 때 합당하다 정의론가 그런 기준을 했을 수 있겠죠.

현재 진행되는 문화도시는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 그러니까 부평이 문화도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부평이 발전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어떻게 했을 때 정의로운지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그런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현재 문화도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관과 민이 서로 협치하는 방식이 부평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런 문화가 부평을 발전시킨다는 게 바로 아마 부평 문화도시의 커다란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도시를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개발 방식이 있죠. 어떤 인프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개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개발했던 도시가 쇠락하면 다시 활성화시키는 재생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OC를 건설한다든가 3차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도시의 부를 창출하는 방식이 있고 주택을 건설해서 인구를 이동시키는 방식은 개발 방식인 겁니다. 도시재생이나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전략들은 공간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의 문화 콘텐츠 생산 역량을 통해서 도시의 부를 창출해낸다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을 더해 도시를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개발은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재생은 소프트 파워 중심의 도시 발전 전략입니다. 정부가 도시를 지원하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 예술 영역의 정부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부평같은 법적 문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유경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사업도 있고 관광 도시 정책도 있고 올해부터 진행된 인구 소멸 지역, 지방 소멸 지역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아닙니다만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도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있는데, 이걸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유네스코가 지정해서 문화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유럽 의회가 선정하는 상호 문화도시가 있습니다. 상호 문화도시는 뭐냐 하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서 일방적인 문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랑 영등포 두 곳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 전략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의 흐름을 보면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요. 그래서 민족문화 창달이 중요한 목표였고 경제 발전이 된 다음부터 이제 예술 재능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많아지고 90년대는 예술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도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펼쳐나가자는 목적으로 문화 복지 정책이 도입이 되고 2000년도에는 문화예술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문화 산업 창의 한국 이런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이런 법정 문화도시가 진행되는 것처럼 지역 문화 또 일상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주는 생활문화 활동 이런 큰 틀에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술의 역할이 뭐였는지 논쟁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제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때는 진리를 재현하는 것이었죠. ‘플라톤’의 로고스를 논하는 이때 예술은 테크네,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신의 구원과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역할이 있었죠. 이때 예술가들은 장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근대에 들어와서는 미적 쾌감, 미적 아름다움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샤르 마테’ 같은 사람들은 예술 장르를 만들게 하고 ‘알렉산더 바그르튼’ 같은 경우에는 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아마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술에 대한 개념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70년~80년대가 되면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영화 같은 장르가 나오면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예술이 계속 복제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파바트’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한다든가 계속 이제 판을 찍어내는 것처럼 반복되는 생산 방식으로 인해 이제 오리지널리티, 본래의 작품이 사라져버려서 예술이 종말이다, ‘아사단토’ 같은 경우에는 예술 끝났다는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예술의 쓰임이 더 많아졌죠.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를 발전시키는 전략도 있고 교육에 쓰이기도 하고 사회 통합 목적으로 예술과 예술가들의 역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술의 본질에서 보면 예술의 미학적 문제와 충돌하게 됩니다.

예술을 살펴봤으니 사회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민주화 시장화 다원화의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가 되고 경제 민주화가 되고 그다음 사회 민주화가 되잖아요. 문화도 민주화 논의가 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시장화,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점점 민영화가 되고 공공 자원들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문화예술도 예술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과처럼 부를 창출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원화 되면서 개인의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강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다양성 정책도 나오고 있죠.

이런 문화예술의 큰 흐름 살펴보면 7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는 아마 제일 중요한 법의 기준이 문화예술 진흥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술 진흥이 목적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문화기본법이라든지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문화권을 실현하는 문화권을 보장해 주고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틀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예술 지

원 가치에 대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말씀드린 흐름에서 도시 문화예술 지원 목적은 근대에 형성된 예술적, 미학적인 세계, 완벽하게 예술적인 충실성, 예술의 창조성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점점 예술의 쓸모가 넘어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총체적인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점이 예술 정책과 예술 지원의 목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도시'는 들어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관련된 전략들을 보면 예술도시라는 제도는 없었었잖아요. 즉 문화도시가 곧 예술도시는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 영역과 충돌하는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화도시 맥락 안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쪽 설명드린 것처럼 정의해본다면 문화도시 맥락에서 예술과 예술가의 역할은 도시 성장과 발전에 기여 하며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시키고 도시 문화발전을 선도하면서 예술의 혁신과 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죠.

문화도시 맥락 안에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 지원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저는 예술 지원이 예술가 지원과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술을 지원하면 예술가를 지원해야겠죠.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은 예술가니까. 하지만 예술가 지원과 예술 지원은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와 예술도시는 다르므로 문화도시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자는 거죠.

그럼에도 문화도시 안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있습니다. 문화를 광의 개념으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발전과 도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 예술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술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고민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가 지원은 이제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죠. 두 번째 예술인 권리 보장법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예술가를 지원한다면 첫 번째는 상시 지원 제도를 두자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술가의 자기 예술을 지원하는 거죠. 예술가 개인의 미학적 세계를 실현할 수 있게 하되 소액 다건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보통 지원 사업을 보면 매년 연초에 시작돼요. 공무원이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교부하는 방식인데, 예술가 자기예술 지원은 계기성 지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연간 분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하지만 소액으로 가는 선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계기성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 자기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되 소액다건으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는 전문가 심사가 아니라 상호 심사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예술가들이 저 예술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의 활동을 아냐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상호 심사 시스템으로 가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도시 맥락에서의 예술 지원을 한다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

지구를 위한 예술을 지원 하자. 그래서 혁신적인 예술이라든지 사회 혁신에 필요한 예술을 지원하고, 특히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예술을 지원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원할 거냐, 주제나 목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지원하게 하자. 그렇다면 소건의 다액 지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예술계에 제시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에는 비평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재 예술 지원은 행정평가를 받잖아요. 이걸 행정평가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전문 비평으로 예술성을 비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한정된 공공재원을 어떻게 썼을 때 정의로우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예술재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근 ESG 같은 기업 후원을 받는 그런 대안적 자원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작 공간 지원이라든지 연속 지원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원은 공공이 지원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 주요한 예술의 후원자가 되도록 하자라는 측면이 이제 문화도시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할텐데요. 그래서 텀블벅이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금을 확보해 내면 공공이 그걸 매칭해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예술위원회 했던 제도인데 기업이나 후원 약정 시 매칭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술가 스스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게 하자라는 측면입니다. 예술가가 선택하는 자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뉴딜이라는 말이 일자리 사업이라고 정해졌는데 뉴딜은 일자리 사업이 아닙니다. 원래 뉴딜은 뭘냐 하면 새로운 사회 계약이에요. 딜이 계약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됐던 뉴딜은 그동안의 국가가 방임했거든요. 경찰국가로서 소유권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 이상의 역할은 국가가 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겁니다. 기업에도 개입해서 세금 더 걷고 규제하고 그 다음 복지제도를 만들고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계획을 만든 거예요. 아쉬운 점은 문 정부에서 뉴딜이 일자리 사업으로 축소된 게 있는데 부평의 문화도시 맥락에서는 예술계와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예술 후원을 왕 귀족 교회 자본가가 했는데 이제 시민과 지역사회가 후원하는 그런 예술을 하자. 그래서 소유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공유재로서의 예술을 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지원이 아닌 하향식 지원으로 하자. 자치활동을 하자는 거고 행정 엘리트 주도가 아니라 이런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이 말을 최종으로 정리하면 부평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그런 방침과 노력, 실천은 분권과 자치를 목적으로 가자. 그리고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 자치도시 부평을 만들자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 포럼이 3부로 구성되고 발제가 두 분 토론 두 분 이렇게 진행되는 관계로 발제는 각 15분 그리고 프론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토론 20분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로 문화예술 지원의 구조와 방향에 대한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렬 문화가치연구소 대표

안녕하세요. 정광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룰 꼭지는 세 꼭지입니다. 거시적인 내용과 미시적인 내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 구조, 거시적인 문화정책의 방향, 실제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들, 개선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현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하게 넘어가고 향후 방향 중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우리 문화예술 재정은 문화부가 올해 예산이 문화재청 빼고 전체 예산의 1.2%입니다. 아주 적죠. 그런데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정부 부처에서 5위에 해당합니다. 사업 건수는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6년 동안 작년 말까지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관리위원으로 문화 쪽 대표로 활동하면서 정리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원 정책이다. 그래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지역문화 전체 보조금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한번 직접 연구조사를 해봤는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아마 더 복잡하게 느끼실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전달 체계를 좀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 합니다. 그 당시 제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청와대 수석께서도 연구 보고서를 보고 관심이 있어 하시고 요약 보고해달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술인 지원을 하려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창작 준비 단계에서는 예술인복지재단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죠. 또 복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죠. 예술 경영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죠. 수요자는 하나인데 공급자들은 각각 흩어져 있는 복잡한 전달 체계에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앙에 각각 관계된 기관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수혜자한테 전달되는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적은 그런 문

제들이 생기고요. 또 문제는 지역에 보조금을 전달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또 중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우리는 예술 지원 기능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에 문화재단들이 있죠. 또 문화재단들은 광역에 또 따로 있고 기초에 따로 있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도 생깁니다. 제가 경기도 문화발전 계획 연구하면서 경기 문화재단과 각 경기도 지자체 간에 역할 분담을 제안했는데 총론은 동의하는데 각론은 동의할 수 없다, 휴전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예술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의 9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연계되어 있고요. 수요자들은 한 군데만 지원 신청하면 알아서 배분하고 같이 시간을 들여 전달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하면 공급기관마다 지원 지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문화재단이나 수요자들은 유사한 사업들을 할 때 지침이 달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동일 기관에서 하는데 부서가 다르면 또 지침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그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지원 중심인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술 지원 모델을 도입할 때 미국식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NEA는 프로젝트 중심인데 이건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공공재원이 아주 적고 민간 자원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원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NEA라는 연방 기구에서 지원 결정을 하면 그게 개런티가 되어서 공공재원 기타 추정부나 시군이나 그다음 민간 자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NEA에서 만 달러를 결정을 지원하면 전체 지원금은 10만 달러 정도가 되어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공 지원 위주잖아요. 이게 맞지 않는 모델이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옛날부터 주장해 온 현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 것들인데요.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공 지원 위주가 되면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어디서 발표를 할지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잖아요.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방식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특히 지역에는 더 심하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까 지역에 같은 예술인 이 예술단체 간에도 잠재적인 지원의 경쟁자가 됩니다. 그래서 협력을 안 해요. 특히 지원 신청 시기가 되면 연대와 협력을 막 부르짖으면서도 서로 눈치 보고 잠재적인 경쟁자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원 프로그램의 결정이나 과정들이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 미처 수요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갑자기 연말이나 연초에 결정이 돼요. 그러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수요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그 정보를 일찍 알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컷 애써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불용액이 되니까 기재부에서는 필요 없다 판단하여 예산을 줄어버리는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런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는 10년간 중장기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법정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법정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라고 하면 2022년도에 세우는 거예요. 2022년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말이 나오면 2023년도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다 확정됐잖아요. 영국은 2~3년 전에 계획을 하고 지원의 방향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 발표를 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위같은 곳은 좀 많이 나아졌죠.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나 지방문화재단에서 지원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상의 사업 년도는 1년인데 실제 사업 기간은 축소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보조금이 지역에 전달되면 어떤 때는 하반기에나 가요. 한정된 기간동안 한정된 수요자들 대상으로 사업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들이죠.

그다음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거 보셨죠. 지원 신청하면서 이걸 문제입니다. 왜 내가 탈락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 다 통보합니다. 왜 탈락했는지 알릴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지원 목표가 불명확해요. 우리가 다 겪는 얘기잖아요. 지원 신청에 뺨맞기 합니다. 다 뺨맞기에서 해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고 금액을 결정해요. 대폭 삭감하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말로 하는 것은 기획이고 숫자로 하는 건 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길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달라져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영국 ACE도 가보고 미국 NEA도 가봤는데 NEA 가서 물어보니 NEA는 지원 계획서에 있는 지원 금액이나 전체 예산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순위부터 이렇게 쪽 지원하다가 NEA 예산이 있는데 NEA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서 20등까지 주겠다 그랬으면 예산이 남은 게 4만 달러인데 신청을 5만 달러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4만 달러밖에 주지 못하지만 총 예산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로 지원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체 20만 달러를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가 당신이 5만 달러 지원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4만 달러를 줄 텐데 20만 달러를 만들 수 있다면 주겠어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NEA가 지원하면 그 1만 달러는 다른 민간 재원으로 보충이 가능하니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초)예술만 그런가요, 영화 쪽도 많습니다. 예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창작 영화 공모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5억 원만 지원하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분이 50 퍼센트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 원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0억짜리 영화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10억 미만의 영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가 제대로 작품성을 가진 영화가 나올까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 실패했습니다.

지원 심의에서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들이 있죠. 왜냐면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이 있는데 심의위원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없어요. 제가 전공 중 하나가 성과 관리 때 세부 기준을 만들어서 편차를 없애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술인들한테 과도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문제입니다. 예술가들한테 예술가이면서 기획자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미국은 가능해요. 미국은 예술단체에 아트 디렉터와 파이낸셜 디렉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원 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공개된 지원 심의 총평을 보면 왜 이 단체를 선정했느냐, 지원심의 보면 우수하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 우수할 것 같고, 예술이 우수하고, 예술인이 우수하고... 벌써 판단 한 거잖아요. 지원하면서 예술이 우수하고, 작품에 대한 것도 맞아요. 성과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우수성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된다면 우수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단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우리는 작품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겠다, 우리의 관객층을 높이겠다,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높이겠다 라는 것들은 단체가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죠. 지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설명하는 데도 한 30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고 재정 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고 하죠. 공공이 혁신한다고 그러죠. 근데 가장 타겟이 되는 게 문화예술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시설은 보조 사업이 많고 사업 건수는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정부가 혁신했다

그러려면 몇 건을 줄였다, 이렇게 계량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의무 지출이나 법정 지출이 아니어서 줄이기 편해요. 그리고 건수,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기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재부 가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와서는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돼서 전체 재정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도 문화예술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 주체에서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런 구조들, 그다음에 공급자가 아니라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문화예술 관람률 85% 달성이거든요. 연 1회 이상 문화예술을 관람한 건데 한 번 문화예술 관람했다고 해서 무슨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예술 역량이 높아질까요. 수요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실제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구조를 혁신해야 할 겁니다.

그다음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실제 상식과 실용,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고 칸막이나 경쟁이라 연대와 협력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창의융합과 관련해서 청년 문화 예술 정책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될 거고요. 왜냐하면 일반 연세 드신 분들보다 젊은이들은 새롭게 만드는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디지털 관련 융합의 가능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고요. 앞으로는 재정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질 거고 참여 기회를 높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원구조 혁신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전달 체계를 단순화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4년간 지원의 선택과 집중의 구조와 성과 계약 중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 지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되 일부 프로젝트 지원을 같이 병행한다는 거고요. 자료에 적어드린 지원 심의도 세부적인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했죠. 공공기관 혁신이 전달 체계를 보완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현 정부가 안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AI 나오고 4차 산업혁명 나오는 이런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지향하고 있고, 벌써 그런 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접근근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지원이 전통적인 방식 말고 새로운 어떤 관점, 디지털 관점에서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생각되므로 문화시설 운

영이나 지역문화재단 지원 체계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에 가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달라 부탁드립니다. 분권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 내에서는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데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부를 살펴보는 못했는데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할 때 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자격 조건으로 우리 지역에서 최소 4년이나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한다면 최종 혜택은 누가 받는 겁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 단체와 협력을 한다면 지역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도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왜 타 지역에 유치되느냐 반대한다고 그러합니다. 저는 이런 논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이런 협력 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이 문화적 가치라고 했을 때 문화 내에서만 아니라 타 분야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들 이런 것들이 진짜 문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는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200억을 지원하는데 문화부 정책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200억을 한 지역에 지원했으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적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본 도시가 18개 선정됐고 작년에 예비 도시 선정이 됐고 올해 또 추가로 지금 공모를 받아서 지금 지원 심의 중입니다. 예비도시 1차 사업은 올해 끝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공동 운명체라고 했잖아요.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 같이 피해 받는 구조인데 문제는 대부분 너무 추상적인 접근을 해왔고 지역의 변화, 지역 주민의 변화, 지역의 발전 변화, 지역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변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2기 문화도시는 바로 그러한 중심에서 재구성할 거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부평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거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계속 컨설팅을 했는데 전주가 이렇게 발전하리라고는 저도 믿지 못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진짜 발전했습니다. 제가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항상 전주에 가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지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그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옛날 전주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변화가 됐던 걸 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문화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더욱더 노력하신다면 개인이나 그다음 부평이나 우리나라 문화예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구조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두 분 발제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무용가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기훈 무용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 무용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이제 3년 됐거든요. 그전에 저는 서울과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인천무용협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페스티벌 이런 데 초청돼서 공연을 온 것이 인연이 돼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느꼈던 건 외부에서 초청돼서 올 때는 약간 조금 더 편하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인천에서 하려고 하니깐 이제 제약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1년 이상 지내야 되고, 연간 몇 회 이상은 공연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원 자체가 신청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무슨 전국 무용제에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 거주 무용수가 몇 프로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천 출신 무용수들이 제자나 후배들을 보면 지금 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오히려 인천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인천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여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지역이 문화로 발전하고, 예술가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장벽들이 낮춰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동희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지역 제한, 지역 장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정광렬 대표님께서 한 말씀 첨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므로 우리나라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각 지역이나 경기도에서 참여 할 때도 각 교류 협력 예산을 최소 20% 이상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약이 없는 각 지자체나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곳 제가 이것을 어디서든지 권고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있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발전계획 연구를 할 때 제가 최초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디서 문화 예술을 관람하는가 조사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관람한 비율은 한 40%고요 인근 지자체에서 한 것들은 40% 서울에서 관람한 게 나머지였습니다. 아까 그냥 이념정도만 조사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신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동희

김기훈 무용가께서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마계 인천에서 최고의 생존력을 자랑하고 있는 장사장이라고 불리는 장한섬입니다. 오늘 두 발제자님 말씀 되게 들었습니다. 아까 유상진 발제자님이 처음에 화두를 던졌을 때 저는 다른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플랏을 어떤 아이에게 주는 게 정의에 적합한가라는 질문보다는 플랏을 주는 사람이 과연 정의로운가 그리고 그가 과연 플랏에 대한 음악적인 음감과 예술관이 정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존력이 높은 이유는 소신은 있으나 대세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7월 말이라서 부평구청장님께서 재선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평의 미래상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부평은 이런 문화도시를 만들 겁니다라고 뭔가 얘기해주신다든가 부평구의회 의장님께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쓸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뭔가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문화도시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교양 과목으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부평구는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가. 음악을 내세우기는 하는데 음악이라는 장르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를 30년 가까이 했지만 10주년 때 200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미리 예상은 했지만 그때도 전용관을 만들자 말했지만 아직도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평 미군 부대라는 애스컴시티를 과거에서 소환해서 뭔가 하긴 하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의 문화인데 과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정확히 그걸 하고서 가는 건지. 그리고 문화도시가 굉장히 근사하지만 문화적 습성이라는 거는 하루 아침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단 도시, 노동자들의 도시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분들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베를린 필이 와서 베토벤을 연주하면 이게 문화도시가 되는가. 저는 지금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 계속 문화도시가 화두가 되다 보니 좀 비생산적이라는 생각,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자면 사실 예산을 투입하면 되게 좋죠. 근데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획자나 예술가들에게 물리적 시간을 많이 줘야 돼요. 고민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 집행이나 사업 공고가 4월, 5월에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6월은 그냥 가고 7~8월은 여름 때 휴가라서 못 하죠. 그러면 모든 문화예술 사업이 9월 10월 11월에 집중돼요. 12월에는 보고서 쓰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3개월 안에 모든 예산과 그게 되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광렬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뭔가 보여주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발제자 두 분을 향한 질문보다는 오늘 이 포럼을 주최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이 도대체 어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을 자꾸 서구식 개념의 시민 계급을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시민 계급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체도 있는데 진영 논리에 갇혀서 뭐

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죠.

지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예산 분배보다는 현장에서 예술가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제대로 행정처리를 빨리했으면 합니다. 농한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좀 뭔가 구상하고 고민할 시간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하면 너무 이렇게 공급자가 그냥 뭔가 갖다 바쳐야 되는 것 같아 소비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나중에 관객이 되게끔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동희

정한섭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상진 전문가님이 코멘트 하실까요.

유상진

제가 뭐 가방끈이 긴 건 아닌데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선생님, 여기 오신 분들 다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리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케네스 애로'라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불가능성 정리'.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을 하나의 합의된 의견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평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시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음악도시 선정이 되고 이렇게 문화도시로 연결된 게 충분한가. 흔하게 말하는 것처럼 지역민들의 얘기를 청취했느냐 의견 들었느냐. 그 과정이 없었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되돌립니까? 처음부터 문화도시 얘기합시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빨리 정리하셔야죠. 어떻게 문화도시 할 건가, 그것 없이 비판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구민들이 수십만 명이 되겠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리할 수 있다면 최선의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없었다면, 만약 부평의 문화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만들지 못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합의안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부평구문화재단이나 부평구는 얘기를 빨리 더 들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정광렬 선생님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합의된 안을 도출해내느냐, 그 합의된 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어떻게 해야될 거냐 그건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광렬 선생님 발표에도 언급되는데 공공지원이 생기는 이유는 시장 실패로 인함이거든요. 공공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이 버티지 못한다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극명히 나타났잖아요. 공공 지원을 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은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나면 정부가 실패한 겁니다. 정부실패라는 말마저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예술의 자생성을 훼손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소비할 수 있게 하고 티켓 사서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상황에서 현실에 기반을 둔 주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이 다시 돌아오면 머리 맞대고 계속 고민해야겠죠.

오늘 문화도시를 주제로 얘기합니다만 문화도시 안에서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논의에는 다른 주제로 같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난보다 비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

고동희

지금부터 2부 시민지원 분야 특성과 변화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 센터장의 마을 공동체 지원의 특성에 대한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센터장

저희가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라고 부개동에 있습니다. 이름은 이성수고요. 제가 맡은 것은 사회적 경제쪽과 마을공동체를 부평구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인천의 공모 사업이나 부평의 공모 사업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활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있으신 분 이 자리에 계실까요? 현재 상황이 이래요.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협동조합은 좀 아실 것 같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5명 이상의 공동체성, 지역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제적 모델을 개발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을 하지 않는데 법인 성격을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마을기업은 1차 년도에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2차 년도는 3천만 원, 3차 년도는 2천만 원. 근데 여기에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인준을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을 한다는 조건이 이렇게 기준표들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 기업을 인준을 해줍니다. 그거 외에도 인건비 지원하는 거 외에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공공기관들에서 우선 이렇게 공공 구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설립 지원, 그리고 창업 교육 인큐베이팅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8개 팀 정도가 저희 공간 안에 있고요. 인천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분들은 이제 타구로 넘어가기가 싫고, 타구에서 또 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공간 지원도 하고 경영 지원 역량 강화 네트워크, 이렇게 그냥 개별로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지역과의 관계성 있는 일을 할 때 마을 공동체나 자생 단체와 같이 하려고 하시는데요. 마을 공동체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 여성친화도시, 도시재생, 평생교육 학교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따로따로 공모했는데 2022년 올해부터는 부평은 5개 과의 한 8개 공모 지원 사업을 묶어 한꺼번에 공모 사업을 사업 설명회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자체 행정가는 1억 8천 정도로 일반형, 성장형, 기획형, 공간 활성화 사업 지원 금액은 한 개소당 4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쪼개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평생교육과는 그 세 가지 사업 평생 학습 동아리 사업,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마을 학교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일반형 기획형으로 그런데 이거는 좀 도시 희망지 사업 더불어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특성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도 거기에 합류해서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주로 문화예술이라든지 마을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일반형으로 문화도시부평 사업 외에도 공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한 거는 주로 공모 사업만 5개 부서랑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통합 공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1월달에 컨설팅을 하고 2월에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 다음은 이런 내용들은 컨설팅 그다음에 심화적인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그때 발표했던 거를 좀 몇 가지씩만 빼서 여기다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5개 부서 중에 제일 진입 장벽이 낮은 데가 문화재단 거더라고요. 기준이 3명 이상만 모여가지고 아무거나 해도 된대요. 그런데도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기획서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건 기획서가 없어도 상담하면서 짜드린다 그러가지고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같이 짜요. 이렇게 해주는 사업부터 자치행정과는 한 10년 정도 짬밥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좀 세졌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마을 수다방 이런 계획서가 없어도 돼요. 한 30만 원부터 간식비 줄 테니까 모여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라. 다양한 지원 사업

스펙트럼이 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에 어떻게 잘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연구가 인천문화재단과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 문화지표와 같은 결과보고서들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부평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에 가면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문화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 해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이 아니면 기획자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렸고 이후에 어땠으면 좋은지 이런 것이 재작년 작년도에 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걸 종합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문화예술을 어디로 볼 거냐 이렇게 저희도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 집수리 간병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화예술 쪽은 문화예술을 실제로 공연 한다든지 기획하는 곳들이 있고 출판과 도서 분야도 문화의 굉장이 큰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교육 서비스업 학교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강사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든 아니면 자치센터든 문화예술센터 또 문화센터 이런 데들이 많은데 그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지원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41개 전체가 사회적 기업이 근데 인증은 170개 정도 예비 사회적 기업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분야는 한 20개 소가 있고 출판 영상 도서 이런 쪽이 11개 소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분야는 24개 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문화재단의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이제 명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은 한 558개소가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460개 사회적 협동조합은 98개소 마을 기업은 총 60개소 중에 예비가 4개 육성 사업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99억 3천6백 82만 2천 원 평균 나누면 8억 2천 정도의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단위가 좀 큰 단위들을 하다 보면 평균이니까 그런데 작년도가 좀 높지 못했던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각 구별로 해서도 공공 우선 구매 이런 걸 하게 되면 공연 기획을 한다든지 저희 풍물대축제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쪽도 있고 출판 영상 도서 교육 서비스 이러한 시장으로의 문화예술인들이 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이런 데로 해서 시장과 공공을 한 반반 정도씩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걸 조사를 해봤을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 문화예술 쪽이 좀 점수가 좀 높습니다. 15점 만점에 13점 이상 이렇게 가지고 높고요. 그런데 이제 협력 사업 문화예술인들 간의 협력 사업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른 데에 비해서보다는 자체 연대보다는 개별이 각자도생 방식으로 경쟁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을 따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들이 모여서 인천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토론하고 최종적으로 인건비 분야를 많이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가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몇 개월 안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좀 길게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업 개발비에 대한 확대 요구,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 영역에서 우선 구매 제도가 보다 홍보가 잘 안되어 일반 기업들한테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해서 우선 구매라든지 판로 지원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문화 마케팅 사업으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의견이 있었구요. 협력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준이나 지표가 좀 더 생산됐으면 좋겠다.

아마 작년에 완성된 문화지표가 보편적인 문화지표라 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맞게 지표들이 정리되어서 3년 지원 후에 종료되는데 연장되는 때에 가치에 대한 게 지표가 있어야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평은 작년 문화지표 개발을 1차로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의 문화예술 쪽에 아직 적용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가 잘 돼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언제나 모든 공모 사업의 어려움이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순인데 인건비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문화예술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보이지 않는 기획 비용이나 준비하는 비용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인천에서도 못했지만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3년 계획이나 로드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부평도 이번에 문화도시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심사를 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가 끝나면 좀 더 투명하게 명료하게 오픈됐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내에도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마을 공동체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담 또는 어느 부서에 그걸 좀 맡아주신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이성수 센터장님께서 마을 공동체 지원 제도의 변화 속에서 문화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멀리서 오셨네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 센터장님께서 전주시 사회혁신사업과 시민지원의 시작과 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 시겠습니다.

원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시사회혁신센터장 원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짧게 저희 센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 조직 아 마 여기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있는 조직들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해나가야 되는 역할들을 짧게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센터에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했던 네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문정부 국정 과제인 행안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전주와 춘천이 18년도에 첫 번째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전 제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울산 그리고 최근에는 청양 밀양 그리고 마지막 전북 군산까지 해서 총 9개의 지자체가 지금 운영 및 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 혁신이 지향하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전문가와 특정 기획집 단 혹은 권한을 가진 분들이었다면 사회 혁신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리는 것이고요,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는 누구나 쉽게 지역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전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시민 주도성, 연결과 협력, 적극적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크게 두 가지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혁신 전주'라는 공간과 그리고 전 주의 성매매 업소였던 '선미촌'을 '성평등 전주'라는 사회 혁신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공간을 통해서 사회 혁신에 대한 다양한 공간 지원과 활동 지원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11월에 오픈을 했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희도 지금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리고 요즘 다양한 가치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토론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저희 또한 어떻게 하나갈지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모든 사업은 이렇게 네 가지 프로세스로 분포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트랙은 관찰과 발굴 그 다음 활동과 실험, 연결과 협력, 공유 확산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의제와 주체들을 활동과 실험으로 연결하고 그들을 연결하고 협력시키고 그다음 마지막 지역에서 공유되고 확산하는 이 트랙에 맞춰 모든 사업들을 다 분포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내세우는 거는 어쨌든 신규 주체들의 등장 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발굴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한 13만 명 정도 전주시 인구의 한 2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저희 센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이 한 200개 정도가 발굴이 됐고 이와 같이 시민분들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저희 센터 중요 소개들은 저희 발표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센터를 맡기 전 20대에 문화기획사를 창업해서 문화기획을 베이스로 청년 활동을 하다가 5년 전에 센터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센터를 맡기로 결정했던 순간에는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느꼈던 그 갈등, 한계, 지원 사업의 뭔가 되게 답답함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에 들어와서 직접 깨보고 싶어서 과감하게 센터로 들어왔는데, 센터에 딱 들어오다 보니 사실 별로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오히려 민간 투자를 받는 것도 더 용이하고 돈을 쓰는 것도 더 용이하고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하기도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하면서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 지원 조직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의 진단 체계 구조 변화라는 틀에서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민간이나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결국 민간에서 하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량을 내보려고 하니까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이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그리고 이제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이런 곳으로서 중간지원 조직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영역 조직의 사이에서 유지하여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중간지원 조직의 개념이 되고 있고요. 주요 역할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연결자, 지원자, 생태계 조성자, 중개자, 조정자, 역량 구축자 이런 정도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중간지원 조직은 사실은 공급자도 아니고 수요자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다는 느

낌이 항상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bridge 역할을 하는 게 중간조직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제 행정에서 느꼈던 답답함을 중간지원 조직에 와서는 조금 부드럽고 편하게 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고 행정에서도 저희를 통해서 보다 더 현장 밀착형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한 건데요. 그러니까 맨 여기 아래가 이제 시민분들이라고 행정이면 저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 시민에게 더 가깝고 싶지만 행정과 현장 시민의 중간 어디쯤이고요. 저희가 5년 차 정도 하고 보니까 결국 자율성과 독립성이 좀 약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 위탁이고 저희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긴 했지만 행정의 큰 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 사회혁신센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이나 시민성의 기반이 약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 위탁이나 저희 같은 조직들이 구성원들의 불안전성 그러니까 근무 조건 같은 것들이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기간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들의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성과들을 무엇으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발제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는 이제 일단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회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자 시작을 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아니라 신규 플레이어들이 지역사회에 등장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 신규 주체들 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청년들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민간에 있었을 때 느꼈던 청년 기획자로서 가장 큰 불만은 뭔가 큰 사업이 생기면 기존에 실력 있으신 분들, 기성세대 분들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1~2년 차 플레이어들은 커리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팀도 많거든요. 특히 그런 팀들이 경쟁에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력과 콘텐츠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단순 경력으로 기성세대한테 많은 것들이 가는 걸 보면서 이런 기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지원사업계획서도 되게 간소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 중 하나는 이제 정산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커뮤니티 관련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회 문제 해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3인 이상만 모이면 정산을 받지 않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 사업이 아예 정산이 없는 건 아니죠. 월간 보고서로 대체를 하지만 기존의 정산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도 저희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혁신센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주체로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심사에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성장 피드백이라는 것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업에서 떨어졌는지 그다음에는 어떠한 것들을 보완해서 도전하셔야 될 건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저는 시민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입 장벽을 낮추지 못하면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을 당연히 저희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안은 유관 기관과의 사업 트랙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센터를 맡기 전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발굴부터 고도화까지 똑같은 트랙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재단도 신규 주체를 발굴하고 어디 창조경제 혁신센터 신규 주체 발굴해서 고도화시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그 기관들이 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곳이 발굴을 하면 B라는 곳에 넘겨서 고도화 시키고 C라는 곳에 넘겨서 더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러한 유관기관 간의 사업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 전주사회 혁신센터가 지금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5개의 전주시 중간지원조직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사업이나 시민들의 의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조금씩 도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혜자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수혜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분들은 본 사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시고 경험을 한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청년 세대들은 지역의 삶의 가능성까지 모색을 하기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색함으로써 어느 순간에는 사업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 등장 시켜야 되는 게 시민 사업의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설계를 하실 때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급자 역할로서 사업의 설계에 참여하는 기회와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적이고 유연한 근무 조건입니다. 최근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저희 같은 조직들의 근무 조건이 굉장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특히 MZ 세대의 이탈이 많습니다. MZ 세대들의 특성상 한 조직이 오래 일하는 것을 갈수록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MZ 세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민간에 있다가 공공 조직에서 오면서 가장 놀란 점은 HR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휴먼 리소스가 없어서 충격받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이긴 했지만 인

사 관리나 인재개발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지만 조직이 굉장히 크에도 불구하고 공공 조직에서 휴먼리소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좀 고민을 하고 시민 사업을 하시면 좀 건강하고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원민 센터장님께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앞에 두 분 발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또 하나는 민간단체 입장에서 이상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가 두 분의 토론을 잇따라 듣고 나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네야 놀자 이용훈 사무국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이용우 동네야 놀자 사무국장

저는 순수하게 진짜 문화를 소비하는 수혜자 시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단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천 삼곡동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동네야 놀자입니다.

저희한테 문화는 어떤 거냐면 시민을 만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문화를 어떻게 같이 나누고 있냐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지원 사업과 지원 사업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을 축제를 먼저 가지고 시작한 단체거든요. 동네에서 동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 축제를 기획했는데 그 축제를 기획할 때 돈이 없었어요. 지원 사업 이런 것도 그때는 없었던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우리 동네에 있는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인을 찾고 그 사람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하자고 설득하고 그 사람의 설득을 받아내서 같이 마을에서 문화를 누렸고요. 그러다가 지원 사업이 조금씩 보이면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예술하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야까 부평 통합공모 얘기하셨는데 올해가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각 부서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화 프로그램 노래 교실을 하나 하는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면 강사비가 4만 원 이렇게 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면은 15만 원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만나는 문화는 똑같은데 노래교실이라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만나는데 4만 원과 15

만 원의 차이가 형성되요. 노래 교실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금액 폭이 적으니까. 근데 공연은 더 심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축제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초대할 때는 거의 무료 공연도 가능한데 어떤 공연은 5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회적 기업 중에 문화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려고 문의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각 지원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0~20만 원 안에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하고 싶은 문화는 무료에서 50만 원 100만 원까지 이렇게 너무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안에서 문화를 하는 사람도 소중하고 문화재단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문화를 소비하는 시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부평시민들은 과연 문화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을의 예를 들어서 지원이 없는 문화사업과 지원이 있는 문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 같은 문화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술인한테 공연 제안을 했을 때 처음 한두 번은 적은 금액에도 같이 와서 해줄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부탁하 기에도 어렵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해드리고 싶지만 해드릴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지원에 대해 상상해 보라, 이렇게 저한테 주제가 던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한 건 뭐였냐면 전문 기획자분들은 예술인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네 안에서는 예술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문화재단에서 우리 부평 지역에서 예술하는 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단측에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맞는 예술인을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받는 그 수준의 예산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화재단 같은 이런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곳에서 그 나머지 차액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그 지원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겠죠. 처음에는 제가 생활비를 위해 예술을 하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무료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페이가 올라가다가 지원금인 20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또 이게 연차가 되면 또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마추어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예술인을 지원해 주고,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주는 곳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문화를 소비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꼭 얘기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고동희

다음은 민간단체 입장에서 이상적인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가 고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유영민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소개받은 유영민입니다. 오늘은 참 소중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이용우 동네에 사무국장님은 화란복로 사업도 하셨나요? 안 하셨구나. 원민 센터장님은 민간에서 공공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저는 공공에서 민간단체에 있어요. 퇴직하고 지금 민간단체 일을 하는데 아직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어설프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성수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장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을 잘 모르는 부분들을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한번 상담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들한테 도시에서의 농업 활동이 문화예술이냐 이렇게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예술이라고 대부분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힘을 받아서 저희의 사례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발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농사와 예술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하는 농사 활동은 작부체계라고 그러죠. 텃밭을 연관 디자인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혼자 하거든요. 예술인들도 처지가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사나 예술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문화는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부평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2년 차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농사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 집중하지 못해요. 민간단체들이 대부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연치않게 작년 문화재단 일사천리 공모사업을 제안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공동체 활동으로 농사짓고 그 맛도 좀 보고, 토종 배추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농문화의 어떤 전환적인 흐름도 좀 관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사천리 사업을 하면서 틀림없이 문화재단에서 이 공동체를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으니 다음 연도 것까지 프로그램 잡아서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두 약속이죠. 구두니까 바뀔 수는 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구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만난 공동체 사람들하고 결별하게 되었어요. 이게 작년부터 이어지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꽤 쓸 만한 도

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모 사업이 상당히 좋아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엑셀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예산 지원의 200만원 범위 내에서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성이 2년 동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간의 비용정도는 예산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위에 것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먹고 지내야 되는 것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단에서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게 틀림없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발굴하는 새내기 공무 단체로 하여금 문화재단의 비전을 따라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동기부여 하는 이런 공모지원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부. 인천 공간지원 사례

고동희

오늘 토론 마지막 3부 인천 공간 지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의 강혜림 과장님께서 인천문화재단의 점점점 공간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강혜림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 과장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혜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주제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사업 점점점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되었던 공간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간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양한 공간 지원 사업들이 재단에 있었는데요. 그중 직접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면서 대관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단독 사업명으로 진행되었던 지원 형식의 사업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에 진행된 '문화예술단체 공간 지원 사업'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은 문화예술 단체였고요. 그 당시 시정 방향과 재단의 사업 추진 방향을 담아서 시민들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재단이 직접 임대 계약을 맺어서 단체에게 공간을 지원했고요.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7년도에 시작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기존 공간을 대상으로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간당 최대 250만원 지원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사 사업으로 구단위 문화재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청계 문화 오아시스 사업이라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사업입니다. 창작 활동 공간을 운영하는 예술인 단체의 공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대략 40곳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사업, 저희는 점점점 사업이라고 합니다.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정 방침을 배경으로 좀 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자생 가능한 창작 환경의 발판을 만들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그 지역 안에서의 지역 참가 예술인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활동하시는 분들과의 접점을 계속 찾고 논의해 가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금은 평균 2,500만 원 정도이고 최대 3년 계속 지원 심의를 진행한 후에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점점 사업지원이 3년 차인데요. 총 13개 공간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올해 청년 점점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7개 팀을 더 선정해서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사업 권역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처음에는 심포아트플랫폼이 있었던 저쪽 왼쪽 편서부터 심포 시장 있는 데까지가 사업 권역이었는데 작년에 동인천 역사 부근과 율목동 인근으로 확대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주로 저희 공간들이 조성된 곳은 중구청 앞쪽에 있는 계양장 구역 쪽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들은 이제 가장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1기분들 올해가 3년 차이신 분들이시고요. 지역성을 띄고 있는 굿즈를 제작하시고 또 그거를 선정 공모까지 해서 또 이제 구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영일상회라는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각 작가 두 분이서 창작 공간 겸 이제 전시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거북이와 두루미의 창작 공간입니다. 그리고 작은 공연과 그다음에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작은 연극 연구소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중고 난방이라고 시각 문학 영화 평론이라고 하는 다른 장르의 예술가분들이 모여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워크숍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점점점 2기는 원래 5팀으로 선정되었다가 현재는 2팀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논의는 사진의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책을 통해서 사진 매체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공유 공간을 만들었고요. 아트랩 99구는 사업 초기서부터 옛날 극장, 그 지역에 있는 정미소라는 역사성을 살리면서 계속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작게 보이지만 복성 포고라고 약간 지역성 띤 칵테일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계시고요.

3기는 올해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보통 선정되고 공간을 구하다 보면 1차 년도는 사

업을 운영하는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2차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올해가 이제 3기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왼쪽부터는 이제 연극 단체인 상상 이상 분들이 꾸미신 연습 공간 겸 워크숍 진행 공간이고 그다음 왼쪽 두 번째부터는 지역 이야기를 영화로 촬영해 공개 하셨던 감독님이 대표이신 일취월장 팀에서 만든 창작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극단 우주선이라고 하는 단체의 작은 공연과 워크숍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쪽 아래쪽은 주로 창작 활동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매거진 탁이라고 출판 사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위에는 점선면이라고 시각 작가분들이 만드신 공간이고 제일 마지막도 점선면 공간입니다. 점점점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의 접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터 단이라는 이름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사업 자문 기획공간 운영 및 창작 활동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 1회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공동 프로젝트 포스터이고요 이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반상회라는 운영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담당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점점 사업 3년 차이고 처음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팀들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에는 1~2년 동안에는 공간을 계속 조성하다 보니 인큐베이팅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잊고 있었던 성적표라고 해야지 될까요. 얼마나 이 공간들이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 공간 중에 이번에 사업 기간이 완료되는 곳이 1, 2기의 6곳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하고 활동 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담당자인 저로서는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들과 비슷하게 점점점 사업도 비슷한 문제점이 보이는데 특히 점점점 사업은 사업 권역, 지역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경제와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터뷰를 하다 보면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면 더 높은 임차료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공간들이 재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 2기분들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공간을 유지하려면 이 임대료를 본인들이 짚어야 되는데 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것도 걱정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올해 마무리를 하는 6팀 중에 어느 몇 팀이 그 공간을 유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만약 임대료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공간을 철수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 위해 들인 지원금과 그분들의 고치고 다듬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게 과연 지원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 건지 하는 고민도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이제 3년 차를 진행을 하니까 새로운 공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다른 방식에 대해 조금 더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생활문화 공간과 연결할 수 있는 샵엔샵 버전이나 오픈 스튜디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 권역을 지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방향도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지원 사업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의 기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이제 자생으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지원 사업에서 그 공간의 수익 사업을 인정해드릴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저희가 지원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허용 범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점 사업은 전통적인 지원 사업보다는 조금 젊은 사업입니다. 기획 사업 성격도 강하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사업이 젊은 지역 활동가들에게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기획해서 공간을 꾸며보고 그 공간을 운영해보고 또 지역과 소통해보는 경험을 이제 가져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계양장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부평구나 아니면 인천의 다른 지역에서도 본인들의 공간을 꾸려보시기도 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 담당자의 욕심으로는 점점점 사업으로 한 군데라도 자리를 잡고서 운영하실 수 있길 바란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동희

다음은 서구에서 주민들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지원 사례에 대해서 서구문화재단의 최영재 시민문화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최영재 인천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팀장

저는 인천 서구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최영재입니다. 먼저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후배 문화재단으로서 많이 배우고 공부하러 왔고요. 저희 서구문화재단에서도 기초문화재단이지만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공간 거점 주민활동 지

원 사업은 생활 문화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은 인큐베이팅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도시와 어떠한 연계 접점을 가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그리고 사업 내용 공모 내용 그리고 추진 결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사례 발표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거점 주민활동 지원 사업은 총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 지원,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활성화, 마을 단위 소규모 생활문화 프로젝트 지원, 생활문화 네트워킹 지원 그리고 추후 생활문화 축제 참여까지 이루어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첫 섹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추경 사업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예산금이 조금 모자라서 또 여러 가지 연휴들 때문에 사업이 조금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공간 거점 주민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공고해서 3인 이상 주민 문화 모임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동일하게 서류 심사, 대면 심사 후 15개 내외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사업 계획과 추진 방향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동아리 지원금을 교부를 하고요. 저희가 성과 워크숍을 가지면서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도 주민들에게 결과 보고 자료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오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문화 활동 장려해서 이제 생활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찾고 그 공간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문화 주체 발굴 그리고 생활 문화 확장 그리고 네트워킹입니다. 추진 목표는 저희가 이제 공간과 주민 지역 활동과 예술가들이 서로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공간을 지원받고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생활 문화인들이 직접 작가, 예술 강사가 되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서구 생활 문화 프로그램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 방침에 문화충전소라고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천개 오아시스라는 사업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저희 전 청장님께서 이제 문화 충전소 100개를 만드셨는데 지금 총 103개의 문화 충전소가 있습니다. 문화충전소라고 함은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천개의 오아시스하고 좀 비슷한데요. 주민들 누구나 쉽게 거주지에서 15분 이내의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서구에서는 지금 103개의 문

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것까지도 공간을 발굴해서 나중에 문화충전소라는 타이틀 현판을 달아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간 주민활동 지원 사업을 모집할 때는 저희도 동일하게 인천 서구 거주자 60%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간 개방 의지가 있는 문화 공간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공간을 발굴해서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이렇게 내주실 수 있는지까지 여쭙보면서 저희가 공간을 발굴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희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집 단체는 총 15개 내외고요 그리고 카페나 서점 모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 해드리는데요.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저희가 어떠한 공모에서 지원 사업이 들어와서 어떤 임차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을 깎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150만 원 정도로 그랬더니 150만 원 안 하겠다. 150만 원 받고 나는 회계 결과 보고까지 못 내겠다. 이래서 비용은 저희가 웬만하면 250에서 300 정도로 계속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공모 내용은 다른 재단하고 동일하게 문학 공연 전시 체험 모든 것이 있는데요. 요즘은 또 약간 창의활동 비롯해서 농작물 키우기 반려동물 소모임 비건 문화가 생활 문화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가 서구 관내 분들을 위주로 생활문화 동아리를 지원하다 보니 이것도 생활문화 동아리야 이것도 생활문화 동아리가 됩니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문의들이 꽤 많아서 간단하게 예시 드렸어요. 뜨개질 되고, 도서관에서 책 만드는 거 되고, 작품 전시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 캠페인 줌깅 다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문화 동아리를 만들고 계속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사회 공원으로 CSR 개념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저희가 캠페인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이하게 코로나 방역비를 20%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방역비가 너무 많아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될까라는 질문도 많았는데 저희는 중간 매개자 입장으로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침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20% 방역비를 꼭 필수적으로 편성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 올해 사업은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그간 공간 운영자들이 코로나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5% 정도로 편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에 참여 동아리 총 16개 그리고 112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활동 분야가 생활 공예 미술 연극 음악 비건 문화 보드게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인천시 생활문화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심의를 가보면 대부분 이제 연극이나 생활 공예 그다음 음악 관련된 동아리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것 중에 몇 개의 동아리들을 좀 간략하게 세 개의 동아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바지바고라는 연극하는 팀이세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신데 지역 주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오디오극으로 제작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팟캐스트에 올려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게임 동아리였는데 이분들은 게임을 직접 만드세요. 사진이 없어서 지금 오른쪽 밑에 사진을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서구에서 문화원가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넣어서 폴 잇이라는 게임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세 번 접어서 아시아드 경기장에 나오게 하세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인천 서구에 어떠한 문화재들이 있는지를 발굴하고 만들고 우리가 직접 만든 게임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공헌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식물 관련인데요. 요즘 식테크가 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무시 못하는 동아리가 됐어요. 이제는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베란다에서 어머님들이 화분 키우시는 거를 좀 더 진화해서 식물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공부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만나서 식물 얘기 나누고 서로 분양도 하고 이런 것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생활문화 동아리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활동 종료 동아리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아리 소개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분들, 또 다른 분들이 동아리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동아리 안에서 삶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드렸고요. 그리고 전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같은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전시를 만들고 단위 면적당 인원수에 맞게끔 전시 관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 결과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추진 관련해서 동아리 분들을 모시고 합평회 같은 논의를 했는데 주요 논의 사항으로 활동 현황과 활동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네트워크는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우리 동아리도 알리고 싶고 서로 간에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뭔가 네트워크 자리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될 수 있게 네트워크 운영자들끼리 만나서 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6건의 참여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들이 많으세요. 지원금을 받아서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부평도 그렇고 인천문화재단도 그렇고 다같이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에 관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뭔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방을 개설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라고 하는데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공유하고 생활 문화 사업을 저희가 홍보 채널로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좀 단점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밤낮 없더라고요. 저녁에도 문자 주시고, 주말에도 문자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틀에 맞춰서 저희가 공지를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6시 이후에는 문자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공지요. 그러나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담당 팀장으로서 지역 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생활문화 동아리를 자생력을 갖춰주는 어떻게 보면 마중물 같은 사업인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역 내에 사회 공헌으로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 공헌을 공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 이분들이 기타 동아리든 음악 동아리든 뭔가 이 동아리 활동을 어디선가 어디선가 이렇게 좀 사회 공헌으로 좀 풀어내고 싶다는 굉장히 니즈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후발적으로 저희가 공연으로 연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재단이라는 특성의 사업적인 게 그 후속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후속적인 대책까지도 세워서 사업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희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3부 포럼은 공간 지원 사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획자의 입장에서 공간 지원에 대한 이상적인 지원 방식은 어떤지 직접 공간도 운영하고 계시고 활동 많이 하고 계신 생활문화공간 달이네의 청산별곡 대표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청산별곡 생활문화공간 달이네 대표

저는 생활문화 공간 달이네를 운영하고 있는 청산별곡이고요. 활동명인데 이제 제 이름이 제가 낯선 사람이라서 잠깐 멈칫했어요. 오늘 참여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너무 많고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현장에 계신 분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공간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했고 그다음 지역 특성화 거점 사업에서 공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고 인천시에 천계의 문화 오아시스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는 뭐 했죠. 최근에 배다리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지원,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공간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채우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재밌어서 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매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더 이상 이것들을 하고 싶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그런 과정들 왜 지원 사업에 하고 싶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게 앞전에 문화도시부평에서 공간 지원하는 부평 별곳 공간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 PM을 해봤고, 지금은 천계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에 매니저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원 사업을 받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듣고 전하는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목소리를 담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지금 지원 사업들을 보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생겼지만 결국은 형태는 같아요. 더 세분화됐지만 내용은 다양성이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근데 사실 그 공간들 자체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이고 아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원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특화된 지원이 없으니까 여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보이냐면 그냥 막말로 돈 따 먹는 딸거지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내가 왜 이런 문화 활동을 하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 문화 공간들이 하는 역할들은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공간들은 전문 예술 창작보다 지역성을 띠고 그 네트워크를 일상으로 확산시키고 문화 운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보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서구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류와 정산 문제를 많이 힘들어 하세요. 소통을 통해서 서류의 간소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행정이 신뢰하고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지원받는 사람들과 단체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히 풀어질 문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지원금이 있고 그 지원금의 규모와 시기가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떨 때는 지원금이 많고 어떨 때는 사업 기간이 적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지원 사업으로써 공간 지원 사업이면 당연히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싶어
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간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공간이 있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 대한 지원 없고 그리고 이제 지원의 대상이 명확하
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지원이고 무엇을 위한 지원이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리고 네트워킹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트워킹은 단체 간의 네트워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
라 지자체와 그 이후와 중간지원단체 이런 네트워킹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서 지금 3차년까지 간 지원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서 1차년
도에서는 행정과 정산이 되게 제일 어려워하고 있고요 2차년도에는 홍보 운영 인력에 대
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3차 년도가 지역 간 네트워킹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을 하면 무조건 무료로 하게 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유료화나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시나 지원기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의견
이 있어서 그것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자율성에 대해 얘기하면 아까도 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다음해의 공모지원을 보장
한다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정량적인 게 아니라
공감과 공유 지지 이런 식의 평가를 통해서 3차년도까지 함께 가는 방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지원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양한 그렇게 규정과 절차
가 또 필요하지만 일반 공모, 기획 공모가 있지만 기획 공모 방식에서 공간과 지원금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절차 같은 건 없고 어떤 그 공간과 지원금을 갖고 해보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기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제가 해보고 싶은 거라서 누가 저한테 공간을 지어주고 돈을 지원해 주면 새로운 것
을 다양한 사람 모아서 같이 구현해 보는 걸 해보고 싶어서 제안해보는데 이런 것들도 지
원이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고동희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것 또는 기대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술가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이상적인 지원 방

식은 어떤 게 있을지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의 사회 대표이신 강헌구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강헌구 시인의 사회 대표

저는 싱어송라이터 강헌구라고 합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사운드 스케이프라는 장르를 하고 있고 공간을 운영을 올해 1월까지 했었고, 문화기획도 하고 공간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16년에 여름 물길이라는 부평의 작은 십정동이라는 동네가 재개발로 없어지면서 그 동네 주민으로서 음악가로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동네 길을 뮤직비디오로 남기고 재개발바라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2016년 12월에 '얼우물길'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 기타 레슨이나 오크렐레 강습이나 그리고 사운드 스케이프로 예술 체험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로 공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서 서구 성남동이라는 곳에 문화공간 거북이 밥을 냈는데 올해 1월에 문을 닫았어요. 뒷집이랑 분쟁이 생겨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지금 공간을 여기저기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사실 공간을 새로 얻는다는 게 만들 때는 무척 에너지가 있다가 없어지고 새로 만들려니까 너무 두렵고 힘들고 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부평 별곳이라는 지원사업에 참여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친해서 공간을 내어주어서 공간을 기반으로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올해도 다행히 선정되서 지원 사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지원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왜 지원 사업은 대표자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는가, 지원사업 기획 운영 정산 결과 보고 모두 독박으로 끝내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는 왜 또 문화재단을 기웃거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순기능을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014년에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연습이랑 뭐 과정들이 있었겠죠. 준비한 다음에 2016년에 첫 앨범을 내는데 그때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받아서 내게 됐고 그때는 정산 절차가 없었는데 올해 얘기 들어보니까 간략하게 정산을 하더라고요 물론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300만 원을 받아서 앨범을 냈는데 사실 앨범 제작하는데 300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술인복지재단에 활동증명이 돼야지만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마련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어요. 저도 지원금을 받아 감사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못 받게 되는 분들께 대

해서는 또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받은 것은 2016년에 바로 그 지원이라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이때는 청년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PPT 발표를 잘 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지원을 받는 장벽이 되게 높잖아요. 인천문화재단의 이런 사업으로 장벽이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창작·표현 활동 지원으로 2018년에 이제 세 번째 싱글을 냈고요. 두 번째 싱글은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냈고 그다음에 서구에 있을 때 예술단체 활동지원 400만 원으로 전기장판이라는 음원이랑 뮤비를 제작했는데 서구 원도심을 다 담았어요. 근데 서구에서 냈는데 서구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확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간 기반으로 이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공간을 내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시민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게 돼요. 1천500만 원짜리 사업을 1천만 원짜리 넘어가는 사업을 처음하게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었고 1년 내내 되게 바빴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운영해야 하니 나가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상황들 다른 일들을 하면서 공간을 자주 비우게 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기획비라는 걸 처음 받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기획비조차 없었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하신 사업 중에서 동네방네 아지트 사업 이것도 공간 활용 지원금이 있어서 보탬이 많이 됐던 사업이었어요. 서구 문화살롱 이것도 활동비 지원으로 정산 절차가 되게 간소화돼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문화충전소 사업인데 절차가 좀 복잡했어요. 250만 원을 지원받는데 회계 서류가 한 이 정도 되는 두께로 저희가 정산을 하는데 쉽지 않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Med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게 고무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사업이고요. 작년에 회계 정산 보고랑 결과 보고가 간소화되서 좋았고 기획비 예산이 15%라는 게 파격적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 공간은 사실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여서 지원금에 대한 고민은 조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에 가서 사장님한테 계속 미안해야 되고 계속 뭔가 팔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기획자로서 저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과 상상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대표자 및 기획자 인건비에 대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정산 서류의 방대한 양이 간소화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인천 연구나 지역 연구 사업의 폐쇄성이 좀 높지 않나. 예를 들면 같은 기간에 같이 하는 협업 프로젝트를 좀 더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평 레지던시 및 예술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부재한데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평에 머물 시간이 좀 늘어나야 부평의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평 예술 표현 활동 지원 사업이 부재한데 지역의 이야기를 창작물로 표현하는 데 이만한 사업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 기획자 양성 과정이 사실 어디서든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청산별곡님처럼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 운영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소진되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 기획자가 양성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산업화 되어야지만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도아가업장이라고 인천 연습공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예술가들이 네트워킹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두 시간 만나서 그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네트워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요. 그래서 4주간의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발제자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한 지역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창작 지원금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면서 창작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되게 신선했고 참여하면서 재미있어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희

혹시 두 발제자 분 중에 오늘 덧붙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영재

우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마중물 사업으로서 이제 예술가들을 펌프질해줘서 뭔가 자생할 수 있는 사업들로 이제 정확한 타깃지원이 필요한데요. 생활 문화가 됐던 예술가 지원 사업이 됐든 간에 어떠한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강헌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정말 이분들에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처음에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지 좀 저희도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공지나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재단도 이런 것들을 중앙과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동희

오늘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도시와 예술에 대한 지원 분야 또 시민 지원 분야 그리고 공간 지원 분야로 나눠서 3부로 진행을 해봤고요. 대체로 보면 기관이나 아니면 정책 연구자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는 적절한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또 향후의 평가는 또는 비평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일부에서 있었고요.

지원 구조 사업을 보다 보면 사실은 전체를 지원할 수 없는 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소수가 선정되는 문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경쟁 관계에 매몰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또 지속 지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선정도 소수인데 그 소수를 또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걸 아마 지원 기관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지원의 대상을 놓고 보면 참 어려운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저희가 범위를 구분했던 형태대로 시민에 대한 지원, 예술가나 기획자에 대한 지원, 공간에 대한 지원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총액같은 개념으로 보면 지원의 규모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에게 집중되는 형태, 단년간 또는 프로젝트성으로 지원되는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정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산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가 적합한지 논의하고 또 연구해야 되겠지만 소액은 지원하는 기관에서 입금 영수증으로 충분히 정산으로 가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제가 속한 기관도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 그리고 의견 주신 모든 분들의 말씀들이 아마도 저희 문화도시부평 또는 부평구문화재단, 부평 지역 또 나아가서 다른 지역의 지원 사업에 대한 고민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좋은 의견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제와 토론은 여기까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이것으로 2022년 문화도시 부평 포럼 첫 번째 포럼이었습니다. 공공 지원 방식의 전환 모색 포럼은 모두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포럼에 지속적으로 관심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더디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메모,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공공 지원방식은?

2022 문화도시부평 포럼

- 발행인** 이영훈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향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총괄 김유정 시민팀 팀장
기획 노수진 시민팀 팀원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처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21440)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8(십정동)
디자인 그루북스